WEBVTT

00:00:09.754 --> 00:00:12.935
우리 이번에는 12강
들어가도록 하겠고요.

00:00:13.126 --> 00:00:14.910
문장 성분 단위로 넘어옵니다.

00:00:15.010 --> 00:00:21.245
문장 성분으로 넘어오게 되면
어절 단위로 따져봐야 되겠죠.

00:00:21.345 --> 00:00:23.975
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
거를 따져보게 되면

00:00:24.075 --> 00:00:28.614
형태소, 의미를 가지고 있는
최소 단위가 형태소였고.

00:00:28.714 --> 00:00:32.915
이거보다 큰 개념이
바로 단어였던 거죠.

00:00:33.015 --> 00:00:36.462
그래서 품사를 공부하는데
굉장히 큰 공을 들였습니다.

00:00:36.562 --> 00:00:42.484
단어에 해당하는 것이
바로 9품사였죠.

00:00:42.584 --> 00:00:45.658
여기까지를 우리는 형태론의
범위라고 보게 됩니다.

00:00:45.758 --> 00:00:47.976
그런데 형태론의 범위를 넘어서

00:00:48.076 --> 00:00:50.918
통사론이라는 용어를
쓰게 되는 개념이

00:00:51.018 --> 00:00:53.456
바로 단어들과 단어들이
더해지게 되면서

00:00:53.556 --> 00:00:56.500
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을
따져볼 수 있겠죠.

00:00:56.600 --> 00:01:03.737
어절은 뭐라고요?
띄어쓰기의 단위예요.

00:01:05.847 --> 00:01:11.740
그리고 이 어절은 문장 성분을 판단할
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.

00:01:11.840 --> 00:01:23.164
이 어절을 다시 이야기하면 문장 성분의
최소 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

00:01:23.264 --> 00:01:31.629
그러면 품사라는 거는 어찌됐든 ~사,
명사, 동사, 관형사, 조사.

00:01:31.729 --> 00:01:33.802
이런 식으로 사로 끝내야 됐다면

00:01:33.902 --> 00:01:36.794
이 문장 성분은 어떻게요?

00:01:36.894 --> 00:01:40.471
어로 끝내야 되는 거를
문장 성분이라고 하죠.

00:01:40.571 --> 00:01:44.627
문장 성분 안에는 크게
일곱 가지가 있습니다.

00:01:44.727 --> 00:01:46.475
문장 성분에 총 몇 개 있다고요?

00:01:46.575 --> 00:01:49.328
7개가 있습니다.

00:01:49.428 --> 00:01:54.707
하나 하나 따져보면 가장 먼저
중심이 되는 주성분 요소로

00:01:54.807 --> 00:01:56.123
네 가지를 잡아주게 됩니다.

00:01:56.223 --> 00:01:59.392
주어, 이미 사실 우리가
품사를 공부하면서

00:01:59.492 --> 00:02:01.407
용어들의 개념들을 정리해봤어요.

00:02:01.507 --> 00:02:02.379
주어가 있었죠.

00:02:02.479 --> 00:02:05.143
그다음에 당연히 서술어가
놓여야 되겠죠.

00:02:05.243 --> 00:02:06.926
이 2개는 무조건 필수적입니다.

00:02:07.026 --> 00:02:10.211
문장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
서술어 있어야 되겠고.

00:02:10.311 --> 00:02:13.103
그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는
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.

00:02:13.203 --> 00:02:16.845

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
완성이 되는 문장도 있겠지만

00:02:16.945 --> 00:02:20.466
어느 서술어의 경우에는 주어만
있어서는 뭔가 허전한

00:02:20.566 --> 00:02:22.044
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.

00:02:22.144 --> 00:02:25.317
그래서 자릿수를 따져봤더니
함께 나와줘야 되는 것이

00:02:25.417 --> 00:02:28.053
이거 목적어 없으면 안 되겠구나.

00:02:28.153 --> 00:02:30.975
가령 예를 들어 타동사를
여기에 예를 들 수 있었죠.

00:02:31.075 --> 00:02:34.320
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
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

00:02:34.420 --> 00:02:38.187
만약에 목적어를 요구하는
용언이라고 한다면

00:02:38.287 --> 00:02:39.982
그거는 적어도 형용사는 아니다.

00:02:40.082 --> 00:02:43.673
왜? 형용사의 경우에는 목적어를
절대 가지고 올 리 없이

00:02:43.773 --> 00:02:45.293
주어만 가지고 해결이 될 테니까.

00:02:45.393 --> 00:02:47.819
그러나 만약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면

00:02:47.919 --> 00:02:51.368
그거는 동사일 수밖에 없고 그때
타동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.

00:02:51.468 --> 00:02:54.450
그리고 보어라는 거를
또 신경써야 됩니다.

00:02:54.550 --> 00:03:00.401
이 보어도 이미 격조사 언급하면서
보격 조사 개념을 설명할 때

00:03:00.501 --> 00:03:02.112
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.

00:03:02.212 --> 00:03:04.157
우리 뭐를 보어라고
한다고 했습니까?

00:03:04.257 --> 00:03:07.970
서술어로 되다나 또는
아니다, 라는 놈이 왔을 때

00:03:08.070 --> 00:03:10.658
주어 말고 보충해주는 말이
반드시 나와야 된다.

00:03:10.758 --> 00:03:12.893
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?
보어라고 한다.

00:03:12.993 --> 00:03:14.302
이거 기억하십니까?

00:03:14.402 --> 00:03:18.889
그래서 이 주성분은 이렇게
네 가지를 이야기하죠.

00:03:18.989 --> 00:03:23.986
그다음에 부속 성분이라는
것이 있어요.

00:03:24.086 --> 00:03:28.477
부속 성분은 꾸며주는 기능을
해주는 성분 두 가지입니다.

00:03:28.577 --> 00:03:38.286
관형어와 부사어가 되겠죠.

00:03:38.386 --> 00:03:40.421
절대 여러분이 헷갈려서 안 되는 게

00:03:40.521 --> 00:03:42.286
관형어랑 관형사를 헷갈려서 안 되고

00:03:42.386 --> 00:03:44.094
부사어랑 부사를
헷갈려서는 안 돼요.

00:03:44.194 --> 00:03:47.417
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포함
관계로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.

00:03:47.517 --> 00:03:51.994
즉 품사로 만약 부사라고 한다면
그것은 무조건 부사어가 되고

00:03:52.094 --> 00:03:55.361
품사로 관형사라면 걔는
관형어가 되겠지만

00:03:55.461 --> 00:03:58.131
관형어라고 해서 무조건
다 관형사는 아니다.

00:03:58.231 --> 00:04:00.753
또 부사어라고 해서 무조건
다 부사는 아니다.

00:04:00.853 --> 00:04:02.362

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.

00:04:02.462 --> 00:04:05.236
즉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
수도 있는 것이고

00:04:05.336 --> 00:04:09.324
또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나 또는
부사격 조사 같은 게 붙어서

00:04:09.424 --> 00:04:10.840
부사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.

00:04:10.940 --> 00:04:14.710
그러니까 얘네들이 곧 품사랑
일치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.

00:04:14.810 --> 00:04:16.341
기능이 같을 뿐입니다.

00:04:16.441 --> 00:04:18.383
그래서 부속 성분이라는 게 있었고

00:04:18.483 --> 00:04:21.042
그다음이 독립 성분이라는 거,

00:04:21.142 --> 00:04:26.102
마지막으로 독립어가 있게 됩니다.

00:04:26.202 --> 00:04:29.885
이렇게 해서 총 일곱
가지 성분이 있는데,

00:04:29.985 --> 00:04:33.732
이거 주성분, 부속 성분,
독립 성분 용어 기억하세요.

00:04:33.832 --> 00:04:37.461
주성분, 부속 성분, 독립 성분.

00:04:37.561 --> 00:04:42.244
그런데 문장 성분을 따질 때
또다른 용어가 있어요.

00:04:42.344 --> 00:04:49.299
바로 뭐냐면 필수 성분이라는
용어가 사실 추가로 있습니다.

00:04:49.399 --> 00:04:53.287
이 필수 성분이라는 거는 어떤
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 내에서

00:04:53.387 --> 00:04:56.638
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뭐냐고
질문을 하는 것이고요.

00:04:56.738 --> 00:05:01.237
이러면 우리는 주성분은 당연히
반드시 필요할 테지만

00:05:01.337 --> 00:05:08.449

거기에다가 부사어가 말이죠.

00:05:08.549 --> 00:05:10.624
반드시 필요한 문장이 있을 거예요.

00:05:10.724 --> 00:05:13.730
그거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거든요.

00:05:13.830 --> 00:05:17.651
그러니 필수 성분을 따질 때는
주성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

00:05:17.751 --> 00:05:21.949
여기에 있는 부속 성분 중에서
필수적 부사어가 있을 때

00:05:22.049 --> 00:05:23.491
그게 필수 성분이
된다고 보면 됩니다.

00:05:23.591 --> 00:05:27.434
이게 뭔지는 우리 부사어 설명하면서
언급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.

00:05:27.534 --> 00:05:33.398
그래서 이렇게 단어 다음 단계로
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이 나오는데

00:05:33.498 --> 00:05:36.239
이 어절은 바로 문장
성분의 최소 단위.

00:05:36.339 --> 00:05:38.908
그래서 어절 단위로 하나하나
따져보기도 합니다.

00:05:39.008 --> 00:05:44.673
그런데 사실 이 어절보다 큰
단어 2개 이상의 구,

00:05:44.773 --> 00:05:50.684
또는 절, 그다음에
문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.

00:05:50.784 --> 00:05:54.668
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번 시간
그리고 다음 시간 어떻게 갈 거냐면

00:05:54.768 --> 00:05:57.949
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
문장 성분을 공부한 다음,

00:05:58.049 --> 00:05:59.554
즉 어절 단위로 공부한 다음

00:05:59.654 --> 00:06:01.755
그다음 시간에 이 단위로
넘어갈 거예요.

00:06:01.855 --> 00:06:03.196
이렇게 해서.

00:06:03.296 --> 00:06:06.727
애랑 애랑 언급을 안 한다는
것은 사실 이 구의 경우가

00:06:06.827 --> 00:06:09.258
귀에 걸면 귀걸이,
코에 걸면 코걸이,

00:06:09.358 --> 00:06:11.601
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게
갈 수 있다는 것은

00:06:11.701 --> 00:06:14.208
문제로 절대 출제를 못하는
부분이라는 거죠.

00:06:14.308 --> 00:06:17.991
그래서 단어 2개 이상이 모였을
때 공동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.

00:06:18.091 --> 00:06:19.659
명사구로 처리하기도 하고.

00:06:19.759 --> 00:06:21.283
부사구로 처리하기도
하고 이런 겁니다.

00:06:21.383 --> 00:06:24.118
꽤 많이 모였다,
이런 식으로 나온다면

00:06:24.218 --> 00:06:25.858
꽤, 많이, 부사, 부사

00:06:25.958 --> 00:06:29.175
그리고 모였다가 나오는데 꽤나
많이를 그냥 묶어서 부사구,

00:06:29.275 --> 00:06:30.982
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.

00:06:31.082 --> 00:06:34.264
그런데 이 구 쪽의 경우에는
문제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

00:06:34.364 --> 00:06:36.390
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가 없고요.

00:06:36.490 --> 00:06:39.050
절의 경우에는 어쨌든
문장을 공부할 때

00:06:39.150 --> 00:06:41.179
이미 포함돼서 설명할
수밖에 없습니다.

00:06:41.279 --> 00:06:44.168
그래서 이 두 개념은 그렇게
어려운 개념도 아니고

00:06:44.268 --> 00:06:46.738
다뤄볼 만한 개념도 아니라는
거 일단 기억하세요.

00:06:46.838 --> 00:06:49.638
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 어절
단위의 문장 성분을 보고

00:06:49.738 --> 00:06:52.590
그다음 시간에 문장의
짜임새 쪽으로 넘어가면

00:06:52.690 --> 00:06:54.035
아주 자연스러운 흐름.

00:06:54.135 --> 00:06:57.157
그래서 출제하는 것들 우리가 다
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.

00:06:57.257 --> 00:06:59.166
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.

00:06:59.266 --> 00:07:03.958
먼저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주성분
중에 바로 주어를 확인해봐야겠죠.

00:07:04.058 --> 00:07:07.664
주어 찾으러 갑시다.

00:07:07.764 --> 00:07:11.777
문장 성분을 여러분이
판단하려고 할 때는

00:07:11.877 --> 00:07:13.746
꼭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.

00:07:13.846 --> 00:07:16.408
무조건 서술어에서부터 올라옵니다.

00:07:16.508 --> 00:07:21.218
우리는 문장을 읽을 때
주어에서부터 읽으려고 하죠.

00:07:21.318 --> 00:07:23.162
그런데 그렇게 되면

00:07:23.262 --> 00:07:26.657
다음 중 밑줄 친 어절의 문장
성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

00:07:26.757 --> 00:07:30.355
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,
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.

00:07:30.455 --> 00:07:33.576
그래서 항상 서술에서부터 올라오는.

00:07:33.676 --> 00:07:35.726
그래서 첫 번째 문장
먼저 보겠습니다.

00:07:35.826 --> 00:07:39.399
쓰다, 이렇게 나왔죠?

00:07:39.499 --> 00:07:41.664
그러면 이 쓰다가 서술어가 되겠는데

00:07:41.764 --> 00:07:44.194
이 서술어에 주어가
반드시 나와야 돼요.

00:07:44.294 --> 00:07:46.252
뭐가 쓴 거예요?
쓴 주체가 뭡니까?

00:07:46.352 --> 00:07:48.376
커피가, 이게 되겠죠.

00:07:48.476 --> 00:07:51.073
그래서 이놈이 주어가
되는 거 맞죠.

00:07:51.173 --> 00:07:54.071
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
문장 내에서 주어입니다.

00:07:54.171 --> 00:07:57.229
그런데 이게 주어 역할을 할
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서는,

00:07:57.329 --> 00:07:58.627
이제 정리가 되죠?

00:07:58.727 --> 00:08:00.247
가 때문이었어요.

00:08:00.347 --> 00:08:04.181
그렇군, 주격 조사가 있군.

00:08:04.281 --> 00:08:13.672
주어가 될 수 있는 환경 체언에

00:08:13.772 --> 00:08:15.980
주격 조사를 넣어주면 되는구나.

00:08:16.080 --> 00:08:17.666
주격 조사가 뭐가 있었습니까?

00:08:17.766 --> 00:08:21.859
대표적인 게 이나 가
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.

00:08:21.959 --> 00:08:25.564
그리고 이나 가 말고도 추가적인
거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.

00:08:25.664 --> 00:08:27.558
일단 이가 대표적으로
아주 기본적인 거죠.

00:08:27.658 --> 00:08:30.436
그래서 이런 놈이 나오면 주어겠구나,

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

00:08:30.536 --> 00:08:35.112
이 쓰다라고 하는 어절은
문장 성분은 서술어죠.

00:08:35.212 --> 00:08:38.419
품사는 뭐였습니까?
형용사가 되겠죠.

00:08:38.519 --> 00:08:41.790
쓰다하면 입맛, 상태를 이야기하는.

00:08:41.890 --> 00:08:45.804
이 형용사가 서술어로 오고 이
서술어가 요구하는 주어가

00:08:45.904 --> 00:08:46.959
이렇게 제시가 됐어요.

00:08:47.059 --> 00:08:48.419
그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.

00:08:48.519 --> 00:08:51.151
서술어 뭡니까? 내렸다가 서술어죠.

00:08:51.251 --> 00:08:55.408
내렸다는 내리다를 사전에서
찾아봐야 될 단어이고요.

00:08:55.508 --> 00:08:57.161
얘는 품사가 동사가 되겠네요.

00:08:57.261 --> 00:08:59.767
그러면 이 동사 역시도
서술어로 쓰였을 때는

00:08:59.867 --> 00:09:02.156
반드시 문장 내 주어가
필요할 것 같습니다.

00:09:02.256 --> 00:09:03.976
그래서 뭐가 내렸다는 겁니까?

00:09:04.076 --> 00:09:08.358
비가 내렸다고 해서 이놈이
주어가 되는 거죠.

00:09:08.458 --> 00:09:12.405
따라서 여기서도 지금 주격
조사인 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

00:09:12.505 --> 00:09:14.945
이거 주어구나, 라는 거를
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0:09:15.045 --> 00:09:17.067
나머지 문장 성분을 따지게 되면

00:09:17.167 --> 00:09:19.687
예를 들어 위에 있는

거에 커피가 너무 쓰다.

00:09:19.787 --> 00:09:22.698
여기서 너무는 없어도 상관 없어요.

00:09:22.798 --> 00:09:24.924
커피가 쓰다, 이래도 되는 겁니다.

00:09:25.024 --> 00:09:26.838
그런데 이때 커피가 너무 쓰다 하면

00:09:26.938 --> 00:09:28.577
쓴 정도를 더해줄 뿐이지만,

00:09:28.677 --> 00:09:33.815
이 쓰다라는 서술어가 너무라는 거를
무조건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.

00:09:33.915 --> 00:09:36.443
반드시 커피는, 이
주어는 필요하겠지만.

00:09:36.543 --> 00:09:40.210
그래서 이 쓰다라는
서술어는 자릿수를 따질 때

00:09:40.310 --> 00:09:41.566
이따 자릿수 이야기 하겠지만,

00:09:41.666 --> 00:09:44.376
주어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
서술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.

00:09:44.476 --> 00:09:47.288
이때의 너무는 부사어이기는 하지만

00:09:47.388 --> 00:09:50.065
필수적 부사어는 절대
될 수 없어요.

00:09:50.165 --> 00:09:51.991
반드시 필요한 거는
아니라는 겁니다.

00:09:52.091 --> 00:09:53.937
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09:54.037 --> 00:09:56.741
비가 내렸다 하면 사실 문장은
깔끔하게 끝날 수 있어요.

00:09:56.841 --> 00:10:00.319
어젯밤에, 많이와 같은 거는
전부 다 내리다를 꾸며주는

00:10:00.419 --> 00:10:02.935
부사어가 되겠지만 필수적인
놈들은 아니에요.

00:10:03.035 --> 00:10:05.050
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.

00:10:05.150 --> 00:10:08.429
서술어가 뭐예요?

00:10:08.529 --> 00:10:10.220
최선이다, 이게 서술어죠.

00:10:10.320 --> 00:10:15.079
위에 있는 문장에서 쓰다는
품사로는 형용사였고

00:10:15.179 --> 00:10:17.860
그다음에 내리다는
품사로는 동사였어요.

00:10:17.960 --> 00:10:21.827
즉 서술어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
것은 기본적으로 동사, 형용사이지만

00:10:21.927 --> 00:10:23.693
얘도 서술어가 될 수 있죠.

00:10:23.793 --> 00:10:25.224
어떤 기능입니까?

00:10:25.324 --> 00:10:27.556
서술격 조사 이다 때문에 그랬어요.

00:10:27.656 --> 00:10:31.227
그래서 최선이라는 명사에
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도

00:10:31.327 --> 00:10:34.785
역시 서술어로 쓰이게 되죠.

00:10:34.885 --> 00:10:42.074
그러면 뭐가 주어가 됩니까?
뭐가 최선이라는 겁니까?

00:10:42.174 --> 00:10:44.257
쉬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.

00:10:44.357 --> 00:10:46.851
여기도 지금 주격 조사
뭐가 붙어있습니까?

00:10:46.951 --> 00:10:50.125
가 대신에 이가 붙어 있죠.

00:10:50.225 --> 00:10:53.549
그 이유는 이나 가는 앞에 받침이
있냐, 또는 없냐에 따라서

00:10:53.649 --> 00:10:56.136
판단이 되는 이형태
관계였을 뿐이었어요.

00:10:56.236 --> 00:10:57.655
기능은 똑같았던 거죠.

00:10:57.755 --> 00:10:59.290

그런데 여기 잠깐 보세요.

00:10:59.390 --> 00:11:02.589
쉬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
이 쉬는 것 안에는

00:11:02.689 --> 00:11:05.203
구성이 쉬다.

00:11:05.303 --> 00:11:07.165
품사가 동사죠.

00:11:07.265 --> 00:11:12.564
그런데 동사가 활용이 되어서 뒤에
있는 의존 명사인 것을 꾸며주는데

00:11:12.664 --> 00:11:14.877
이게 주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.

00:11:14.977 --> 00:11:17.931
그러니까 문장 성분을
따질 때 것만 주어다,

00:11:18.031 --> 00:11:19.230
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.

00:11:19.330 --> 00:11:22.284
이렇게 구개념으로
두 개의 단어 이상이 묶여서

00:11:22.384 --> 00:11:24.379
문장 성분을 잡아주기도 합니다.

00:11:24.479 --> 00:11:26.854
그래서 이럴 때는 쉬는
것이, 이게 주어야.

00:11:26.954 --> 00:11:28.302
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.

00:11:28.402 --> 00:11:30.681
것이 주어야, 이렇게
이야기하지는 않아요.

00:11:30.781 --> 00:11:32.819
그래서 문장 성분을 따질 때

00:11:32.919 --> 00:11:36.582
가장 최소 단위가 문장 성분은
어절 단위라는 것일 뿐,

00:11:36.682 --> 00:11:39.889
이렇게 2개의 어절이 하나의
문장 성분의 기능을 하는

00:11:39.989 --> 00:11:43.138
또는 3개의 어절, 4개의 어절이
하나의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하는

00:11:43.238 --> 00:11:45.303
그런 해석도 충분히

가능하다는 겁니다.

00:11:45.403 --> 00:11:48.731
그래서 여기서는 역시나
주어를 만들어주기 위한

00:11:48.831 --> 00:11:51.243
주격 조사인 이가 붙어
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.

00:11:51.343 --> 00:11:52.615
밑에도 보겠습니다.

00:11:52.715 --> 00:11:54.578
마지막 슛이 골대에서
약간 빗나갔다.

00:11:54.678 --> 00:11:58.823
지금 서술어로 빗나가다,
라는 동사가 나왔죠.

00:11:58.923 --> 00:12:03.362
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마지막 슛이,
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.

00:12:03.462 --> 00:12:05.932
그래서 마지막을 떼면 그냥
슛이, 이래도 되겠지만.

00:12:06.032 --> 00:12:09.003
여기서는 주어 부분에서
함께 포함되어 있는

00:12:09.103 --> 00:12:15.100
마지막 슛+이

00:12:15.200 --> 00:12:17.833
이때 이놈이 주어의 기능을
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

00:12:17.933 --> 00:12:19.688
마지막 슛이, 여기까지예요.

00:12:19.788 --> 00:12:21.664
마지막 슛, 이게 주어라고
하면 안 됩니다.

00:12:21.764 --> 00:12:24.364
쉬는 것이, 여기까지가
주어가 됩니다.

00:12:24.464 --> 00:12:27.555
그래서 이렇게 주격 조사들을
선택하고 있는 것들

00:12:27.655 --> 00:12:28.908
주어로 판단하면 되겠네요.

00:12:29.008 --> 00:12:30.129
그다음 보겠습니다.

00:12:30.229 --> 00:12:33.431
그런데 우리는 주격 조사로 이와 가만
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배웠어요.

00:12:33.531 --> 00:12:34.923
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죠?

00:12:35.023 --> 00:12:38.360
높임을 나타내는 대상 뒤에는 주격
조사 께서를 쓸 수 있었죠.

00:12:38.460 --> 00:12:39.580
밑에 있는 예문이 그렇습니다.

00:12:39.680 --> 00:12:41.341
사 주셨대요, 사 주셨다.

00:12:41.441 --> 00:12:44.788
이것도 2개의 어절, 띄어
썼으니까 2개의 어절이지만

00:12:44.888 --> 00:12:47.191
하나의 서술어로 취급을 하잖아요.

00:12:47.291 --> 00:12:49.980
앞에 있는 거 사,
그다음에 뒤에 주다가

00:12:50.080 --> 00:12:52.175
본용언, 본용언일 수도 있었어요.

00:12:52.275 --> 00:12:55.012
우리 전에 공부했던 것에 대한
복습이 될 수 있습니다.

00:12:55.112 --> 00:12:57.260
사서 준 거일 수도 있지만,

00:12:57.360 --> 00:13:00.961
사주다, 라는 것이 사는 행위의 봉사성
있게끔 표현한 거일 수도 있죠.

00:13:01.061 --> 00:13:04.402
그래서 이 2개의 어절이
하나의 서술어로 이루게 되고

00:13:04.502 --> 00:13:05.844
주어는 누구입니까?

00:13:05.944 --> 00:13:07.763
할머니께서, 이게 주어가 되죠.

00:13:07.863 --> 00:13:09.418
목적어는 자전거를.

00:13:09.518 --> 00:13:12.161
여기서는 주격 조사로
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

00:13:12.261 --> 00:13:14.823
특별히 께서, 라는 거를

붙여서 만들었던 거네요.

00:13:14.923 --> 00:13:17.061
그다음 문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?

00:13:17.161 --> 00:13:23.032
단체 주어로 볼 수 있었던 주어 뒤에
주격 조사 에서를 쓰게 되는 거죠.

00:13:23.132 --> 00:13:26.772
그래서 이때는 시작하는 주체가
백화점이라는 단체나 기관이에요.

00:13:26.872 --> 00:13:29.569
그래서 단체나 기관이 주어일 때에는

00:13:29.669 --> 00:13:32.530
이렇게 주격 조사로 에서를
쓸 수가 있었던 거죠.

00:13:32.630 --> 00:13:35.135
그러면 이때 에서가
바로 뭐가 된다?

00:13:35.235 --> 00:13:36.950
주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.

00:13:37.050 --> 00:13:39.444
그래서 우리 주어 부분을
전부 다 체크를 해봤고요.

00:13:39.544 --> 00:13:41.499
밑에 있는 예문은 뭐냐면,

00:13:41.599 --> 00:13:43.641
눈이 오면 스포츠카도
거북이가 된다.

00:13:43.741 --> 00:13:48.599
여기서 서술어가 된다가
나와 있잖아요.

00:13:48.699 --> 00:13:52.522
그러면 주어가 뭐냐고 했을 때
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.

00:13:52.622 --> 00:13:54.940
너무 쉽게 생각해서
거북이가, 이게 주어네요.

00:13:55.040 --> 00:13:56.992
이렇게 이야기하면 망하는 거예요.

00:13:57.092 --> 00:13:57.978
왜 그러냐?

00:13:58.078 --> 00:13:59.926
우리는 보어라는 개념을
알고 있어요.

00:14:00.026 --> 00:14:03.040

보어는 어떤 서술어
앞에 보충해주는 말?

00:14:03.140 --> 00:14:05.785
되다,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.

00:14:05.885 --> 00:14:09.786
여러분, 여기 지금 된다는 되다에서
활용이 되면서 된다가 된 거거든요.

00:14:09.886 --> 00:14:14.499
그러면 이 되다, 이놈은
주어 말고 뭐가 필요하다?

00:14:14.599 --> 00:14:15.858
보어가 필요해요.

00:14:15.958 --> 00:14:17.648
다시, 주어 말고 뭐가 필요하다?

00:14:17.748 --> 00:14:19.006
보어가 필요한 겁니다.

00:14:19.106 --> 00:14:22.048
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가
주체가 되는 거냐면,

00:14:22.148 --> 00:14:26.619
여기 지금 스포츠카도,
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조사잖아요.

00:14:26.719 --> 00:14:28.872
뭐를 대체하고 있죠?

00:14:28.972 --> 00:14:31.374
가가 와야 될 자리를
대체하고 있는 거죠.

00:14:31.474 --> 00:14:33.637
즉 스포츠카가 거북이가 된다.

00:14:33.737 --> 00:14:41.674
이때 이놈이 스포츠카도,
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.

00:14:41.774 --> 00:14:44.596
이 거북이가, 이게 뭐가 된다?

00:14:44.696 --> 00:14:45.947
보어가 된다는 겁니다.

00:14:46.047 --> 00:14:50.048
따라서 만약 문제가 여기에 있는 이
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면

00:14:50.148 --> 00:14:52.987
이거는 절대 주격 조사가 아닌
뭐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?

00:14:53.087 --> 00:14:55.166
보격 조사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.

00:14:55.266 --> 00:14:58.729
다시 한 번, 되다나
아니다 앞에는 주어 말고

00:14:58.829 --> 00:15:00.701
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고

00:15:00.801 --> 00:15:05.128
그 보충해주는 말 체언 뒤에
조사로 이나 가가 붙게 되는데

00:15:05.228 --> 00:15:08.297
그때 주격 조사 이, 가랑
헷갈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5:08.397 --> 00:15:09.956
그래서 서술어로 챙겨주시면

00:15:10.056 --> 00:15:13.374
보어의 자리가 놓여야 된다는
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.

00:15:13.474 --> 00:15:16.158
이렇게 해서 주어를
한번 쭉 살펴봤습니다.

00:15:16.258 --> 00:15:21.285
선생님이 다음 시간에
안은 문장, 안긴 문장

00:15:21.385 --> 00:15:22.878
이런 거 이야기하면서는

00:15:22.978 --> 00:15:27.011
주격 조사 앞에 단순히 명사들
위주로만 놓이는 게 아니라

00:15:27.111 --> 00:15:29.613
활용형 형태로 보게 될 텐데.

00:15:29.713 --> 00:15:33.609
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체언 뒤에
주격 조사인 이, 가, 께서

00:15:33.709 --> 00:15:36.372
그리고 단체 주어 에서,
이런 것들 붙는 거구나.

00:15:36.472 --> 00:15:42.361
단 이나 가의 경우에는 보어를 만드는
보격 조사 유의해야 되겠구나.

00:15:42.461 --> 00:15:44.524
다음 서술어 가겠습니다.

00:15:44.624 --> 00:15:47.366
서술어는 지금 이야기했던
동사나 형용사,

00:15:47.466 --> 00:15:51.082

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체언 뒤에
붙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.

00:15:51.182 --> 00:15:54.602
빨리 찾아보면 동사 서술어 웃었다.

00:15:54.702 --> 00:15:59.979
힘드냐? 형용사 서술어.

00:16:00.079 --> 00:16:05.368
그다음에 당당하다,
형용사 서술어죠.

00:16:05.468 --> 00:16:07.563
그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?

00:16:07.663 --> 00:16:09.930
11이라는 수사죠.

00:16:10.030 --> 00:16:16.190
수사 더하기, 이거 서술격 조사.

00:16:16.290 --> 00:16:20.483
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것도
서술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.

00:16:20.583 --> 00:16:23.553
웃었다 주어는요? 사또는 웃었다.

00:16:23.653 --> 00:16:26.837
힘드냐, 뭐가 힘드냐?
일하는 것이.

00:16:26.937 --> 00:16:28.485
이게 전체 주어로 잡아야 돼요.

00:16:28.585 --> 00:16:29.688
일하는 것이 힘드냐?

00:16:29.788 --> 00:16:32.758
당당했다, 누가 당당했다?
그는 당당했다.

00:16:32.858 --> 00:16:35.545
그래서 주어 뭐가
뭔지 찾아봐야겠죠.

00:16:35.645 --> 00:16:38.364
11이다, 뭐가 11이다?
들어갈 수는.

00:16:38.464 --> 00:16:42.794
그래서 지금 주어들이랑은 항상
같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.

00:16:42.894 --> 00:16:47.946
만약 문장에서 주어가 안 찾아진다면
그거는 문맥상 생략되어있는 것이고

00:16:48.046 --> 00:16:50.029
그때는 찾아주면 됩니다.

00:16:50.129 --> 00:16:52.051
영어에서 가주어 같은 거를 놓듯이

00:16:52.151 --> 00:16:54.484
우리도 가짜 주어를
넣어보면 되는 거예요.

00:16:54.584 --> 00:16:57.868
단 주어는 빠질 수는 있어도
서술어는 빠지면 안 돼요.

00:16:57.968 --> 00:17:00.629
문장 내에서 반드시
서술어는 필수적이다.

00:17:00.729 --> 00:17:05.621
그래서 주어는 문맥상, 담화상 서로
이해하는 관계 속에서는 빼는 일이

00:17:05.721 --> 00:17:09.105
또는 목적어도 빼는 일이
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.

00:17:09.205 --> 00:17:11.437
그러나 서술어는 절대
빠지지 않는다.

00:17:11.537 --> 00:17:14.432
그래서 문장 성분을 따질 때 핵심은 뭐다?
서술어다.

00:17:14.532 --> 00:17:15.570
서술어에서 올라오는 겁니다.

00:17:15.670 --> 00:17:16.780
밑에 예문 가보죠.

00:17:16.880 --> 00:17:23.019
그런데 이 서술어의 형태가
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나,

00:17:23.119 --> 00:17:27.700
얘는 당당+하다의 구조니까 이거는
파생어로 만들어진 형용사가 될 텐데.

00:17:27.800 --> 00:17:32.333
이런 구조든 아니면 체언에다가
서술격 조사를 더해서 만들어놓든

00:17:32.433 --> 00:17:34.601
이런 놈들은 그래도 일반적인 거지만

00:17:34.701 --> 00:17:37.362
이런 것들은 약간 어색하다는
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

00:17:37.462 --> 00:17:39.164
이것도 역시 서술어로
처리가 됩니다.

00:17:39.264 --> 00:17:44.869
우선 갈밖에, 이거는 우리가
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지

00:17:44.969 --> 00:17:46.674
하나하나 찾아보세요.

00:17:46.774 --> 00:17:49.353
모두가 다 간다면 나도 갈밖에.

00:17:49.453 --> 00:17:52.678
여기에 지금 띄어쓴 게
아니라 붙여 썼으므로

00:17:52.778 --> 00:17:56.224
여기서 동사가 가다에 어간 가고.

00:17:56.324 --> 00:17:58.199
ㄹ밖에가 뭐에 해당한다는
거를 알 수 있습니까?

00:17:58.299 --> 00:18:02.112
이것도 종결 어미였어?

00:18:02.212 --> 00:18:06.516
우리는 문장을 마무리지어주는
종결 어미로

00:18:06.616 --> 00:18:09.364
기본형으로 평서형 어미 다.

00:18:09.464 --> 00:18:11.337
그다음에 의문형 어미 ~하냐?

00:18:11.437 --> 00:18:13.162
명령형 어미 아라, 어라.

00:18:13.262 --> 00:18:14.638
청유형 어미 ~하자.

00:18:14.738 --> 00:18:17.025
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~할밖에.

00:18:17.125 --> 00:18:19.991
이런 식으로 문장을 마무리하는
거에 대해서 다소 어색한,

00:18:20.091 --> 00:18:22.334
아니면 중간에 끊어낸 게 아닌가.

00:18:22.434 --> 00:18:24.483
이어질 문장이 더 있는데
끊어낸 거 아닌가.

00:18:24.583 --> 00:18:25.832
그렇지 않습니다.

00:18:25.932 --> 00:18:28.284
분명 ㄹ밖에를 여러분이
사전에서 찾아보면

00:18:28.384 --> 00:18:30.377
종결 어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.

00:18:30.477 --> 00:18:34.207
그래서 이런 것들도 뒤에 마침표를
딱 찍어주면서 마무리지어주는.

00:18:34.307 --> 00:18:35.840
즉 이게 지금 서술어가 되는 거죠.

00:18:35.940 --> 00:18:38.885
모두 다 간다면 나도
갈밖에, 갈밖에가 서술어.

00:18:38.985 --> 00:18:41.791
또 간다면, 이 부분도
서술어로 처리할 수 있는데

00:18:41.891 --> 00:18:44.780
왜 이것도 서술어인지는 이따
이어진 문장 가면서 볼게요.

00:18:44.880 --> 00:18:46.149
그다음 계속.

00:18:46.249 --> 00:18:48.834
재료 부족으로 조기에
마감할 수 있음.

00:18:48.934 --> 00:18:52.296
있습니다, 이렇게 서술어가
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면

00:18:52.396 --> 00:18:56.608
보면 되게 인기 있는
가게 같은 데에는

00:18:56.708 --> 00:18:58.343
이런 거 붙여놓을 때 있잖아요.

00:18:58.443 --> 00:18:59.553
재료가 빨리 떨어지는 거야.

00:18:59.653 --> 00:19:02.413
그래서 그럴 수 있음, 이렇게 해서
문장을 마무리지었다고 할지라도

00:19:02.513 --> 00:19:04.332
이거는 명사형이잖아요.

00:19:04.432 --> 00:19:06.632
음이라는 명사형 전성
어미를 취했지만

00:19:06.732 --> 00:19:09.180
이것도 역시 서술적
기능을 가지기 때문에

00:19:09.280 --> 00:19:11.099
서술어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9:11.199 --> 00:19:15.326
그래서 이렇게 마감할 수 있음, 이것도
서술어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.

00:19:15.426 --> 00:19:18.721
이것도 지금 보면,

00:19:18.821 --> 00:19:20.710
앞으로도 자주 만납시다그려.

00:19:20.810 --> 00:19:24.298
여기 만납시다그려에서 어디가
서술어인 거를 알 수 있습니까?

00:19:24.398 --> 00:19:26.491
만납시다그려, 이게 서술어예요.

00:19:26.591 --> 00:19:29.242
그러면 도대체 여기는
어미가 뭐예요?

00:19:29.342 --> 00:19:31.352
시다그려, 이런 겁니까?

00:19:31.452 --> 00:19:35.780
앞서 봤을 때 여기는 만나다,
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

00:19:35.880 --> 00:19:41.055
ㅂ시다, 라는 종결
어미가 이미 붙어 있죠.

00:19:41.155 --> 00:19:44.441
그리고 추가로 들어오는
그려는 뭐라고 한다?

00:19:44.541 --> 00:19:45.891
보조사.

00:19:45.991 --> 00:19:48.591
없어도 되는데.

00:19:48.691 --> 00:19:52.747
그려나 그래 같은 거 약간 나이가
있으신 분들이 뒤에다 붙이는,

00:19:52.847 --> 00:19:56.377
좋구만 그려, 좋구만 그래
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

00:19:56.477 --> 00:20:00.367
이런 거는 끝에 붙어 있는
종결 보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

00:20:00.467 --> 00:20:03.858
문장의 성분을 바꾸거나
그런 기능은 전혀 없죠.

00:20:03.958 --> 00:20:06.501
역시나 마무리가 되었음을
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0:20:06.601 --> 00:20:09.026
이 문장에서 자주 만납시다그려,
라고 하는 것이

00:20:09.126 --> 00:20:11.202
서술어가 되는 것이고, 전체가 다.

00:20:11.302 --> 00:20:12.955
그러면 주어가 뭘까요?

00:20:13.055 --> 00:20:16.243
맥락상 우리는, 이 정도가 생략돼
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00:20:16.343 --> 00:20:19.340
그래서 이렇게 서술어의
다양한 동사 형용사,

00:20:19.440 --> 00:20:22.502
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
있는 상태를 봤는데.

00:20:22.602 --> 00:20:26.569
사실 이렇게 문장 성분 문제가
독립적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

00:20:26.669 --> 00:20:28.961
그런데 독립적으로 자주
내는 것 중에 하나가

00:20:29.061 --> 00:20:30.861
바로 이 자릿수 문제입니다.

00:20:30.961 --> 00:20:34.666
이제부터 우리는 문장을 보고
서술어의 자릿수가 몇 개나 될지

00:20:34.766 --> 00:20:36.684
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0:36.784 --> 00:20:41.563
서술어 운다, 아련하다, 주책이다.

00:20:41.663 --> 00:20:46.627
동사, 형용사, 그리고 명사에
이다 서술격 조사 붙어 있는

00:20:46.727 --> 00:20:48.796
그런 상태로 서술어가
만들어져 있죠.

00:20:48.896 --> 00:20:53.094
이 운다는 문장 내에서 반드시
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이

00:20:53.194 --> 00:20:54.951
몇 개일지를 따져보면 됩니다.

00:20:55.051 --> 00:20:57.267
먼저 운다, 반드시 주어 필요해요?

00:20:57.367 --> 00:20:58.376
주어 찾아봅니다.

00:20:58.476 --> 00:21:01.426
누가요? 아이가.

00:21:01.526 --> 00:21:05.035
아이가 운다, 어때요?
깔끔하죠.

00:21:05.135 --> 00:21:07.376
어떻게 해달라고,
아니면 어떻게 운다.

00:21:07.476 --> 00:21:11.352
이런 것들은 붙어진 거, 추가적으로
사족으로 달려 있을 뿐이지

00:21:11.452 --> 00:21:15.083
없어도 문장에 이 울다의
뜻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

00:21:15.183 --> 00:21:17.247
그래서 아이가 울다,
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.

00:21:17.347 --> 00:21:21.405
어떻게, 어떻도록 이런 표현들은
필수적이지 않다는 거죠.

00:21:21.505 --> 00:21:23.419
우리는 이렇게 자릿수를 따질 때

00:21:23.519 --> 00:21:25.961
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,

00:21:26.061 --> 00:21:29.078
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
성분의 수를 따져야 되거든요.

00:21:29.178 --> 00:21:32.261
그러면 여기서의 운다는 주어만
요구하는 한 자릿수구나.

00:21:32.361 --> 00:21:34.254
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0:21:34.354 --> 00:21:36.266
서술어의 자릿수예요.

00:21:36.366 --> 00:21:39.513
서술어는 그 자릿수에
들어가면 안 됩니다.

00:21:39.613 --> 00:21:43.155
얘가 요구하는 거는
주어라는 겁니다.

00:21:47.650 --> 00:21:50.584
그다음, 그 시절의

추억이 아련하다.

00:21:50.684 --> 00:21:53.205
서술어가 아련하다인데
주어는 뭐가 될까요?

00:21:53.305 --> 00:21:55.004
추억이 아련하다.

00:21:55.104 --> 00:21:56.963
그 시절의, 이것도
사실 없어도 돼요.

00:21:57.063 --> 00:21:58.309
추억이 아련하다,

00:21:58.409 --> 00:22:00.825
이렇게 해도 이 아련하다의 의미는
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.

00:22:00.925 --> 00:22:02.678
그래서 그 시절의, 사족.

00:22:02.778 --> 00:22:04.404
추가적으로 붙은 거고.

00:22:04.504 --> 00:22:07.120
역시나 추억이라는 주어만
있으면 되는 것이니까

00:22:07.220 --> 00:22:08.695
얘도 한 자릿수 서술어.

00:22:08.795 --> 00:22:09.886
다음, 주책이다.

00:22:09.986 --> 00:22:12.175
누가 주책이다?
내가 주책이지.

00:22:12.275 --> 00:22:17.587
아까는, 좀 이런 거 없어도
문장 깔끔할 수 있어요.

00:22:17.687 --> 00:22:19.811
아까는 내가 좀 주책이었지?

00:22:19.911 --> 00:22:22.646
이거는 뉘앙스만 덧대주는 거지
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다.

00:22:22.746 --> 00:22:23.934
그래서 내가 주책이었지?

00:22:24.034 --> 00:22:25.351
이렇게 해도 끝나는 거죠.

00:22:25.451 --> 00:22:30.628
그래서 얘도 역시 주어만 있어도 되는
한 자릿수 서술가 되는 겁니다.

00:22:30.728 --> 00:22:33.116
두 번째 형태 볼까요?

00:22:33.216 --> 00:22:38.845
주웠다, 사전에서 찾으려면
줍다를 찾아야겠죠.

00:22:38.945 --> 00:22:42.067
이 동사의 자릿수는 몇 개일까요?

00:22:42.167 --> 00:22:44.831
누가 줍다? 문장 내에서 없어요.

00:22:44.931 --> 00:22:46.548
그러나 챙겨줘야 돼요.

00:22:46.648 --> 00:22:47.764
가주어를 만들어줘야 돼요.

00:22:47.864 --> 00:22:49.178
반드시 주어는 없을 수가 없다.

00:22:49.278 --> 00:22:51.740
이 문장 보면 대충 나는,
이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.

00:22:51.840 --> 00:22:54.641
그래서 내가, 나는 체험
학습으로 밤을 주웠다.

00:22:54.741 --> 00:22:56.410
내가 주웠다 하면 끝납니까?

00:22:56.510 --> 00:22:57.658
뭔가 허전하죠?

00:22:57.758 --> 00:22:59.673
내가 주웠어, 라고
하면 뭐를 주웠는데?

00:22:59.773 --> 00:23:00.981
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.

00:23:01.081 --> 00:23:02.271
그러면 얘는 뭐를 요구한다?

00:23:02.371 --> 00:23:04.901
주어 말고도 목적어가
요구되는 놈이에요.

00:23:05.001 --> 00:23:12.036
그래서 얘는 두 자릿수
서술어가 되겠고, 줍다.

00:23:12.136 --> 00:23:20.898
이때의 필요한 두 자리는 주어와
~을에 해당하는 목적어.

00:23:20.998 --> 00:23:22.430
정리됐습니까?

00:23:22.530 --> 00:23:23.751
그다음 거 볼까요?

00:23:23.851 --> 00:23:25.712
서술어 뭐예요? 신다.

00:23:25.812 --> 00:23:27.866
그러면 내가 신었다
하면 역시 궁금하죠.

00:23:27.966 --> 00:23:28.910
뭐 신었는데?

00:23:29.010 --> 00:23:31.343
신발 신었어? 아니면 양말을 신었어?
버선을 신었어?

00:23:31.443 --> 00:23:34.014
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?
목적어 필요하죠.

00:23:34.114 --> 00:23:36.842
오늘이나 노란 같은 경우에는
없어도 상관이 없고요.

00:23:36.942 --> 00:23:39.967
그래서 역시 두 자리 서술어로

00:23:40.067 --> 00:23:45.108
주어와 목적어가 요구되는
경우를 지금 잡았습니다.

00:23:45.208 --> 00:23:48.655
한 자릿수 서술어는 무조건
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

00:23:48.755 --> 00:23:52.882
서술어가 주어가 아닌
목적어를 요구한다든가

00:23:52.982 --> 00:23:56.439
서술어가 주어가 아닌 부사어를
요구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.

00:23:56.539 --> 00:23:59.084
기본적으로 서술어가 있으면
주어는 따라 와야 된다.

00:23:59.184 --> 00:24:01.373
문장에 없으면 찾아내셔야
된다, 만들어야 된다.

00:24:01.473 --> 00:24:02.993
그다음 거 가볼까요?

00:24:03.093 --> 00:24:04.843
얘는 지금 두 자리로
주어, 목적어가 있었다면

00:24:04.943 --> 00:24:05.915
얘네도 그런가요?

00:24:06.015 --> 00:24:08.179
여기 서술어 다니다가 나왔죠.

00:24:08.279 --> 00:24:11.991
누가 다니다? 내 동생은
다니다, 동생이 다니다.

00:24:12.091 --> 00:24:13.581
주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.

00:24:13.681 --> 00:24:16.722
그런데 동생이 다니다 이러면
또 뭐를 궁금해할까요?

00:24:16.822 --> 00:24:22.290
어디에 다닌다는 거니?
어디로 다닌다는 거니?

00:24:22.390 --> 00:24:27.751
그래서 ~에, ~로가 붙을 수밖에
없는 그러한 어절이 필요해요.

00:24:27.851 --> 00:24:29.057
맞습니까?

00:24:29.157 --> 00:24:31.534
태권도 학원에, 그러면
이 기능이 뭐다?

00:24:31.634 --> 00:24:34.881
뒤에 나와 있는 다니다를
꾸며주게끔 만들어주는 부사어죠.

00:24:34.981 --> 00:24:40.191
따라서 이 다니다라는 단어는
서술어로 쓰일 때 뭐가 필요하다?

00:24:40.291 --> 00:24:46.217
주어랑 ~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
있는 부사어가 필요한 거죠.

00:24:46.317 --> 00:24:47.958
그다음 또 볼까요?

00:24:48.058 --> 00:24:51.308
같다, 뭐가 같다?

00:24:51.408 --> 00:24:52.792
시간이 같다.

00:24:52.892 --> 00:24:55.597
시간이 뭐와 같다?
흐르는 물과 같다.

00:24:55.697 --> 00:24:57.608
반드시 지금 뭐가 필요해요?

00:24:57.708 --> 00:24:59.987
~와, ~과 이게 필요해.

00:25:00.087 --> 00:25:03.659
그러면 ~와, ~과도
관계를 맺는 대상이

00:25:03.759 --> 00:25:05.788
지금 여기서는 시간과 물이잖아요.

00:25:05.888 --> 00:25:07.902
이 사이에 시간과 물은
같다, 이게 아니라

00:25:08.002 --> 00:25:10.020
시간과 물과 같다,
이렇게 나가버리면

00:25:10.120 --> 00:25:13.775
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와,
과는 뭐로 보기로 했습니까?

00:25:13.875 --> 00:25:16.159
접속 조사 아니고 부사격
조사로 보기로 했죠.

00:25:16.259 --> 00:25:17.664
이거 그러면 지금 부사어잖아요.

00:25:17.764 --> 00:25:23.134
따라서 이놈도 두 자릿수 서술어,
같다도 두 자리 서술어구나.

00:25:23.234 --> 00:25:25.597
뭐가 필요하다? 주어랑 부사어.

00:25:25.697 --> 00:25:27.864
시간은 주어, 물과는
부사어 필요하구나.

00:25:27.964 --> 00:25:31.198
다음 거 가볼까요?

00:25:34.119 --> 00:25:35.858
서술어 뭐 나왔어요?

00:25:35.958 --> 00:25:38.981
보니까 되겠다, 이게 나왔습니다.

00:25:39.081 --> 00:25:40.722
주어가 뭐 있습니까?

00:25:40.822 --> 00:25:46.242
애들 장난이, 이게 주어가 되겠죠.

00:25:46.342 --> 00:25:49.136
뭐가 되겠다? 어른 싸움이 되겠다.

00:25:49.236 --> 00:25:53.185
어른 싸움이? 이거 지금
서술어로 뭐를 잡았어요?

00:25:53.285 --> 00:25:55.180
되다를 잡았죠.

00:25:55.280 --> 00:25:57.531
그리고 밑에 것도 볼까요?
뭐가 서술어예요?

00:25:57.631 --> 00:25:59.236
아니다죠.

00:25:59.336 --> 00:26:03.722
그러면 이렇게 되다나
아니다의 경우에는

00:26:03.822 --> 00:26:06.060
주어 말고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?

00:26:06.160 --> 00:26:07.781
보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.

00:26:07.881 --> 00:26:10.624
즉 여기서의 되는 주체는 장난인데

00:26:10.724 --> 00:26:12.829
그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다?

00:26:12.929 --> 00:26:14.640
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다.

00:26:14.740 --> 00:26:17.106
따라서 이 어른 싸움이,
이게 뭐에 해당한다?

00:26:17.206 --> 00:26:18.674
보어에 해당하는 거죠.

00:26:18.774 --> 00:26:21.399
또 마찬가지, 그는 내
보호자가 아닙니다.

00:26:21.499 --> 00:26:24.148
누가 아니라는 거예요?
그가 아니라는 거예요.

00:26:24.248 --> 00:26:26.263
그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, 그는.

00:26:26.363 --> 00:26:29.648
그다음에 보어는 뭡니까?
내 보호자가 아닙니다.

00:26:29.748 --> 00:26:32.487
되다,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.

00:26:32.587 --> 00:26:35.868
그래서 이놈이 바로
보어가 되는 거죠.

00:26:35.968 --> 00:26:40.456
각각 보어임을 알려주는
보격 조사가 붙어 있어요.

00:26:40.556 --> 00:26:47.666

따라서 이놈들도 자릿수로 따지게 되면
두 자리라고 잡아볼 수 있겠네요.

00:26:47.766 --> 00:26:51.190
그리고 이 되다, 아니다라는
놈이 서술어로 왔을 때는

00:26:51.290 --> 00:26:55.139
주어와 보어가 필요함을
확인할 수 있었고요.

00:26:55.239 --> 00:26:57.738
이제 그다음 세 번째 유형입니다.

00:26:57.838 --> 00:26:59.501
서술어가 뭐 나와 있어요?

00:26:59.601 --> 00:27:01.171
주겠소, 주다.

00:27:01.271 --> 00:27:04.484
당연히 주어는 필요하죠.
누가 주다?

00:27:04.584 --> 00:27:07.673
문장 내에서 없어요.

00:27:07.773 --> 00:27:09.738
그러면 만들어야죠, 뭐,

00:27:09.838 --> 00:27:12.944
내가, 가주어 같은 거
만들어주는 거예요.

00:27:13.044 --> 00:27:15.590
이거 주어겠죠, 내가 주겠소.

00:27:15.690 --> 00:27:18.068
그러면 내가 주겠소,
이러면 궁금해하는 게

00:27:18.168 --> 00:27:19.898
뭐를 주겠다는 거죠?

00:27:19.998 --> 00:27:22.927
~를, 이런 목적어 필요하죠.

00:27:23.027 --> 00:27:25.098
그다음에 누구에게, 혹시 저요?

00:27:25.198 --> 00:27:26.403
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.

00:27:26.503 --> 00:27:28.932
그러니까 주다는 누구에게
준다는 말도 필요할 거예요.

00:27:29.032 --> 00:27:31.922
그러면 누구가 무엇을 누구에게,

00:27:32.022 --> 00:27:36.590

이런 세 가지 문장 성분이
필요하다는 건데.

00:27:36.690 --> 00:27:44.819
따라서 주다라는 말은 주어랑
목적어랑 누구에게 부사어랑

00:27:44.919 --> 00:27:47.243
세 가지 필요한 거 맞죠.

00:27:47.343 --> 00:27:48.915
다음 삼다 나왔습니다.

00:27:49.015 --> 00:27:53.492
주어 뭐예요? 역시
없네요, 안 보입니다.

00:27:53.592 --> 00:27:55.044
역시 똑같이 가볼게요.

00:27:55.144 --> 00:27:57.622
내가 옆집 청년을 사위로 삼았다.

00:27:57.722 --> 00:28:00.988
역시 주어가 필요하고
목적어 필요합니다.

00:28:01.088 --> 00:28:03.032
내가 누구를 무엇으로.

00:28:03.132 --> 00:28:07.321
그러면 무엇으로에 해당하는
사위로가 부사어가 되는 거죠.

00:28:07.421 --> 00:28:09.228
그래서 역시나 같은 맥락이고요.

00:28:09.328 --> 00:28:10.823
여기에 서술어 뭐 있어요?

00:28:10.923 --> 00:28:13.927
넣다 나옵니다.

00:28:14.027 --> 00:28:17.881
그러면 주어가 뭐죠? 누가 넣다?

00:28:17.981 --> 00:28:20.039
내가 역시 생략돼 있습니다.

00:28:20.139 --> 00:28:21.241
내가 넣어야지.

00:28:21.341 --> 00:28:23.699
그러면 뭐를 넣는 거죠?

00:28:23.799 --> 00:28:28.465
내가 넣다, 무엇을 넣다?
달걀을 넣다.

00:28:28.565 --> 00:28:30.444
이제 이런 거 주의하셔야죠.

00:28:30.544 --> 00:28:34.476
달걀은, 이런 말이 나와 있지만
얘는 보조사일 뿐이죠?

00:28:34.576 --> 00:28:37.147
이 자리에 들어올 수
있는 조사를 챙겨보면

00:28:37.247 --> 00:28:38.705
딱 을, 이거밖에 없잖아요.

00:28:38.805 --> 00:28:40.650
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.

00:28:40.750 --> 00:28:42.727
이놈 지금 목적어고

00:28:42.827 --> 00:28:44.255
그다음에 이놈 부사어가 되잖아요.

00:28:44.355 --> 00:28:47.029
~에, 부사격 조사.

00:28:47.129 --> 00:28:52.616
그래서 주어, 목적어, 부사어 다 가지고
있는 세 자릿수 서술어가 되겠죠.

00:28:52.716 --> 00:28:55.517
그래서 자릿수를 따지려고 할 때에는

00:28:55.617 --> 00:29:01.439
그 서술어가 문장 성분 중에서 뭐를
요구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.

00:29:01.539 --> 00:29:04.984
지금 문장에 보면 이렇게
당신에게 주겠소.

00:29:05.084 --> 00:29:06.511
또 사위로 삼았다.

00:29:06.611 --> 00:29:09.033
또 여기 라면에 넣어야
된다고 할 때,

00:29:09.133 --> 00:29:11.358
이 당신에게, 사위로, 라면에.

00:29:11.458 --> 00:29:12.857
이거는 전부 다 부사어였잖아요.

00:29:12.957 --> 00:29:17.064
이런 부사어는 이 서술어가 나왔을
때는 반드시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

00:29:17.164 --> 00:29:19.943
얘네를 필수적 부사어라고
표현하는 거예요.

00:29:20.043 --> 00:29:22.642

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
문장 내에 있어야 되는

00:29:22.742 --> 00:29:26.404
필수 성분이 되는 거고요.

00:29:26.504 --> 00:29:29.224
그러나 우리는 서술어의
자릿수를 가지고 판단할 때

00:29:29.324 --> 00:29:32.486
그 서술어의 자릿수가 고정되어있는
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

00:29:32.586 --> 00:29:36.249
왜냐하면 특히 동사나 형용사와
같은 놈으로 서술어로 쓰였을 때는

00:29:36.349 --> 00:29:39.129
의미가 너무 많아,
다의적인 것들이죠.

00:29:39.229 --> 00:29:40.964
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

00:29:41.064 --> 00:29:44.511
얘가 어느 어휘로 쓰였는지 그
문장을 보고 잘 판단해야 돼요.

00:29:44.611 --> 00:29:46.529
먼저 보죠.

00:29:46.629 --> 00:29:48.916
첫 번째 예문과
두 번째 예문은 공통적으로

00:29:49.016 --> 00:29:53.815
오다, 라는 동일한
서술어로 사용을 했잖아요.

00:29:54.873 --> 00:29:57.114
그러면 오다의 자릿수는 몇 개냐?

00:29:57.214 --> 00:29:58.719
그거는 되게 무식한 질문이에요.

00:29:58.819 --> 00:30:00.991
위문장에서 오다의
자릿수는 몇 개냐.

00:30:01.091 --> 00:30:03.211
또 아래 문장에서 자릿수는 뭐냐고

00:30:03.311 --> 00:30:05.387
따로 따로 독립적으로
물어보셔야 됩니다. 왜?

00:30:05.487 --> 00:30:08.456
이 오다, 라는 놈의 자릿수는
고정되어있지 않습니다.

00:30:08.556 --> 00:30:14.160
위에 있는 문장은
자릿수가 몇 개일까요?

00:30:14.260 --> 00:30:16.672
자릿수는 한 자리,
주어만 있으면 됩니다.

00:30:16.772 --> 00:30:18.559
어차피 여기에 겨울이 가고,

00:30:18.659 --> 00:30:22.151
이 부분은 앞에 있는
선행절이라고 해서

00:30:22.251 --> 00:30:24.389
뒤에 있는 후행절과
이어져 있는 상태.

00:30:24.489 --> 00:30:25.917
즉 독립적으로 보시면 됩니다.

00:30:26.017 --> 00:30:27.378
그래서 걔는 빼고.

00:30:27.478 --> 00:30:31.264
그러면 여기서 이 서술어의
주어는 이놈밖에 없잖아요.

00:30:31.364 --> 00:30:32.878
봄이 온다.

00:30:32.978 --> 00:30:34.340
또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.

00:30:34.440 --> 00:30:36.888
이때의 가다는 뭐가 된다?

00:30:36.988 --> 00:30:39.673
여기서의 가다, 여기서도 가다.

00:30:39.773 --> 00:30:41.609
전부 다 가다.

00:30:41.709 --> 00:30:44.033
이렇게 서술어가 이어져 있는데

00:30:44.133 --> 00:30:46.043
이것도 겨울이 가다, 봄이 오다.

00:30:46.143 --> 00:30:47.809
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.

00:30:47.909 --> 00:30:51.143
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는
자릿수가 한 자리구나.

00:30:51.243 --> 00:30:52.553
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.

00:30:52.653 --> 00:30:53.954

그런데 밑에 있는 거,

00:30:54.054 --> 00:30:55.957
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
문장이 끊어지게 되거든요.

00:30:56.057 --> 00:30:57.417
내가 학교를 가다.

00:30:57.517 --> 00:30:59.756
내가 가다, 어디를 가는데?

00:30:59.856 --> 00:31:01.653
학교를 가는 거다.

00:31:01.753 --> 00:31:04.048
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.

00:31:04.148 --> 00:31:13.772
우리 국어에서는 원래
기본형은 ~에, 라고 하는

00:31:13.872 --> 00:31:17.732
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격
조사, 이게 와야 됩니다.

00:31:17.832 --> 00:31:20.775
그래서 이렇게 쓰이게 되면
에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

00:31:20.875 --> 00:31:23.386
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.

00:31:23.486 --> 00:31:25.645
그런데 우리 문장에서는
뭐가 가능하냐면

00:31:25.745 --> 00:31:29.562
철수가 학교를 가다, 이 표현을
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.

00:31:29.662 --> 00:31:32.846
그리고 이때 학교를과
같이 를이 들어와 있으면

00:31:32.946 --> 00:31:37.518
이거는 목적어로 봐줘요.

00:31:40.613 --> 00:31:47.135
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이야기하는
서술어가 나왔을 때

00:31:47.235 --> 00:31:51.130
이렇게 부사어나 목적어가 둘 다 올
수 있다는 점이 국어의 특징인데.

00:31:51.230 --> 00:31:52.456
이것도 마찬가지예요.

00:31:52.556 --> 00:31:54.281
내가 학교를 가면, 이라고 했을 때

00:31:54.381 --> 00:31:57.061
학교에가 오든, 학교를 가든
어쨌든 뭐가 있어야 돼.

00:31:57.161 --> 00:32:01.296
그런데 지금 이 가다가
위에서는 뭐가 가다.

00:32:01.396 --> 00:32:02.867
이렇게 해서 한 자리면 되는데

00:32:02.967 --> 00:32:04.579
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는

00:32:04.679 --> 00:32:06.350
주어 말고도 목적어가 더
필요하다는 이야기.

00:32:06.450 --> 00:32:07.458
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.

00:32:07.558 --> 00:32:11.031
형이 왔다, 라고 할 때
맥락상 내가 집에 있으면

00:32:11.131 --> 00:32:13.013
집에 왔겠지 싶을 수도 있지만

00:32:13.113 --> 00:32:15.541
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
정보를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.

00:32:15.641 --> 00:32:16.714
형이 왔어요.

00:32:16.814 --> 00:32:18.403
아니, 어딘데? 어디를 왔는데요?

00:32:18.503 --> 00:32:19.952
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.

00:32:20.052 --> 00:32:24.562
따라서 얘는 주어, 목적어가
필수적으로 요구됐고.

00:32:24.662 --> 00:32:27.101
여기서는 주어, 부사어가
필수적으로 요구됐다.

00:32:27.201 --> 00:32:30.137
따라서 얘네 가다, 오다는
전부 다 자릿수가 몇 개다?

00:32:30.237 --> 00:32:32.427
2개가 돼버리는 거다.

00:32:32.527 --> 00:32:33.635
이렇게 달라지죠.

00:32:33.735 --> 00:32:34.937

밑에 것도 가볼까요?

00:32:35.037 --> 00:32:37.855
서술어로 뭐가 나왔습니까?
되다가 나왔어요.

00:32:37.955 --> 00:32:39.661
되다, 되어 있다.

00:32:39.761 --> 00:32:42.503
이 뒤에 보조 용언이니까
결국 되다인데,

00:32:42.603 --> 00:32:45.637
이 되다의 자릿수를 따져보면
아까 전에 되다나 아니다는

00:32:45.737 --> 00:32:48.015
뭐를 요구한다고요?
보어를 요구하겠죠.

00:32:48.115 --> 00:32:50.177
주어 말고도 보어를 요구합니다.

00:32:50.277 --> 00:32:51.663
여기서 주어가 뭐죠?

00:32:51.763 --> 00:32:55.728
허허벌판이, 이게 주어가 되겠죠.

00:32:55.828 --> 00:32:57.865
뭐가 되었다? 신도시가 되었다.

00:32:57.965 --> 00:32:58.854
이게 보어입니다.

00:32:58.954 --> 00:33:01.206
따라서 이때 가는 보격
조사라고 불러주면 돼요.

00:33:01.306 --> 00:33:03.303
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?

00:33:03.403 --> 00:33:04.551
주어가 뭡니까?

00:33:04.651 --> 00:33:06.895
우리나라가 되어 있대요,
우리나라가 주어네요.

00:33:06.995 --> 00:33:10.281
그다음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.

00:33:10.381 --> 00:33:12.026
그런데 삼면이, 이것도 주어입니다.

00:33:12.126 --> 00:33:13.828
선생님, 주어가 두
가지 올 수 있나요?

00:33:13.928 --> 00:33:18.304

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안은 문장,
이어진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

00:33:18.404 --> 00:33:20.484
이 삼면이, 이게 새로운 주어.

00:33:20.584 --> 00:33:23.213
그리고 바다이다 같은 게
새로운 서술어로 봤을 때

00:33:23.313 --> 00:33:25.520
이게 지금 안겨 있는 구조,
이런 느낌이 있어요.

00:33:25.620 --> 00:33:27.845
그런데 어쨌든 그냥 주어인
거 판단하면 되겠고요.

00:33:27.945 --> 00:33:31.506
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,
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.

00:33:31.606 --> 00:33:33.688
바다로가 뭐에 해당하죠?
보어가 됩니다.

00:33:33.788 --> 00:33:37.047
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빼더라도,

00:33:37.147 --> 00:33:38.807
이거는 지금 빠져도 상관 없거든요.

00:33:38.907 --> 00:33:40.262
이것만 한번 따져보세요.

00:33:40.362 --> 00:33:42.259
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의 경우에

00:33:42.359 --> 00:33:44.723
삼면이 되어 있다? 뭐로
되어 있다는 말이냐?

00:33:44.823 --> 00:33:46.138
바다로 되어 있다는 말이다.

00:33:46.238 --> 00:33:47.405
이거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.

00:33:47.505 --> 00:33:50.666
그러면 이때의 바다로는
보어일 수가 없어요.

00:33:50.766 --> 00:33:52.827
다시 말씀드리면 보어일
수가 없어요.

00:33:52.927 --> 00:33:55.066
왜? 보격 조사가 아니야.

00:33:55.166 --> 00:33:57.221
아까 보격 조사로는

뭐만 있다고 했습니까?

00:33:57.321 --> 00:33:59.615
이나 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.

00:33:59.715 --> 00:34:01.705
그런데 얘는 이나 가가가
아니라 로예요.

00:34:01.805 --> 00:34:02.905
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?

00:34:03.005 --> 00:34:07.105
부사어가 는 거니까, 부사격 조사가
되니까 부사어가 된다는 거죠.

00:34:07.205 --> 00:34:10.517
따라서 얘는 주어,
부사어, 서술어의 구성이고

00:34:10.617 --> 00:34:12.746
이때의 되다는 자릿수가 몇 개?

00:34:12.846 --> 00:34:17.609
주어랑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는
두 자릿수라는 이야기죠.

00:34:17.709 --> 00:34:20.786
얘는 주어와 보어를
요구하는 두 자릿수.

00:34:20.886 --> 00:34:24.080
그러니까 두 자릿수는 똑같은데
필요한 문장 성분이 달라요.

00:34:24.180 --> 00:34:25.983
그래서 위에 있는 되다는 주어고

00:34:26.083 --> 00:34:28.200
밑에는 주어, 부사어고
요구되는 경우이다.

00:34:28.300 --> 00:34:30.500
그다음 갑니다.

00:34:30.600 --> 00:34:32.311
밑에 거 서술어가 뭐가 나왔죠?

00:34:32.411 --> 00:34:33.965
알다가 나왔어요.

00:34:34.065 --> 00:34:36.115
앞에 있는 문장에서
한번 판단해보세요.

00:34:36.215 --> 00:34:38.897
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?

00:34:38.997 --> 00:34:41.378
제가 여기 맛집은 좀 알아요.

00:34:41.478 --> 00:34:43.857
뭐를 알아요? 내가 알아요?

00:34:43.957 --> 00:34:46.318
뭐도 필요하죠? 목적어도 필요하죠.

00:34:46.418 --> 00:34:47.858
맛집을 알아요.

00:34:47.958 --> 00:34:50.989
여기서의 은은 목적격 조사를
대체하고 있는 은일 뿐입니다.

00:34:51.089 --> 00:34:53.036
그러니까 목적어임은 분명해요.

00:34:53.136 --> 00:34:54.659
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문장 성분.

00:34:54.759 --> 00:35:00.297
제가 주어,
맛집을 목적어, 알아요.

00:35:00.397 --> 00:35:01.874
두 자리입니다.

00:35:01.974 --> 00:35:02.914
주어, 목적어.

00:35:03.014 --> 00:35:04.164
그다음에 여기 안다.

00:35:04.264 --> 00:35:05.441
이 문장 한번 볼까요?

00:35:05.541 --> 00:35:07.621
그녀는 남자친구를
자기 지갑으로 안다.

00:35:07.721 --> 00:35:12.171
그녀는 안다, 일단 주어 필요해요.

00:35:12.271 --> 00:35:14.017
주어는 무조건이니까.

00:35:14.117 --> 00:35:16.082
그녀는 남자친구를 안다.

00:35:16.182 --> 00:35:20.160
그런데 남자친구를 안다고 하면 왠지
느낌이 이해하다의 느낌 아닙니까?

00:35:20.260 --> 00:35:21.976
그런데 여기서는 그거 아니잖아요.

00:35:22.076 --> 00:35:23.558
여기다의 뜻으로 쓴 거 아닙니까?

00:35:23.658 --> 00:35:26.117
그러면 남자친구는 뭐로 여기는지가
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?

00:35:26.217 --> 00:35:29.623
그러면 무엇으로에 해당하는
바로 으로가 뭡니까?

00:35:29.723 --> 00:35:31.774
부사격 조사, 부사어죠.

00:35:31.874 --> 00:35:35.651
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그녀는
누구를 뭐로 여기다,

00:35:35.751 --> 00:35:37.858
뭐로 알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

00:35:37.958 --> 00:35:40.241
여기에 있는 부사어까지
필요하잖아요.

00:35:40.341 --> 00:35:42.177
얘는 자릿수가 몇 개? 세 자릿수.

00:35:42.277 --> 00:35:45.404
그러니 지금 이렇게 오다의
경우나 알다의 경우에

00:35:45.504 --> 00:35:47.335
자릿수가 달라지는 거 볼 수 있고.

00:35:47.435 --> 00:35:50.051
또 되다의 경우에 자릿수는
동일하다고 할지라도

00:35:50.151 --> 00:35:53.454
그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
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.

00:35:53.554 --> 00:35:58.213
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
얘는 한 자리, 얘는 두 자리.

00:35:58.313 --> 00:35:59.692
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

00:35:59.792 --> 00:36:03.049
그 문장 내에서의 쓰임을 가지고
판단하는 거라는 거를 강조합니다.

00:36:03.149 --> 00:36:05.032
다음.

00:36:05.132 --> 00:36:10.112
나머지 성분들은 이제 가볍게 갈 수
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.

00:36:10.212 --> 00:36:11.531
한 번씩 해보죠.

00:36:11.631 --> 00:36:13.891
목적어랑 보어는 이미
앞에 서술어 이야기하면서

00:36:13.991 --> 00:36:15.451
언급이 되는 거니까
찾아보세요, 첫 번째 문장.

00:36:15.551 --> 00:36:18.751
지용아, 체육복 좀 빌려줘.

00:36:18.851 --> 00:36:20.884
목적어 어디 있습니까?

00:36:20.984 --> 00:36:22.827
체육복이 목적어가 되죠.

00:36:22.927 --> 00:36:26.986
선생님, 목적어가 왜?

00:36:27.086 --> 00:36:28.814
생략했으니까요.

00:36:28.914 --> 00:36:33.527
우리는 문장에서 구어체, 특히 대화할
때 조사 많이 빼지 않습니까?

00:36:33.627 --> 00:36:36.265
그러니까 지용아
체육복을 좀 빌려줘.

00:36:36.365 --> 00:36:38.385
이렇게 해야 될 문장을
체육복 좀 빌려줘.

00:36:38.485 --> 00:36:41.503
이렇게 해봤자 빌려주다에
필요한 성분은

00:36:41.603 --> 00:36:44.116
누가, 무엇을 빌려주다가 필요하고

00:36:44.216 --> 00:36:46.910
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지용이
너가, 이게 주어이고.

00:36:47.010 --> 00:36:49.796
무엇을의 자리에 저 체육복
나오는 거잖아요.

00:36:49.896 --> 00:36:52.350
그러니까 목적격 조사가
생략돼 있다 할지라도

00:36:52.450 --> 00:36:54.129
목적어임은 분명합니다.

00:36:54.229 --> 00:36:55.561
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네요.

00:36:55.661 --> 00:36:56.697
이 밑에 거는요?

00:36:56.797 --> 00:37:00.582

절 보자고 한 이유가 뭐죠?

00:37:00.682 --> 00:37:04.289
여기 지금 보자고 부분이에요.

00:37:04.389 --> 00:37:07.223
이게 보다, 라는 서술어로
가지고 있을 텐데.

00:37:07.323 --> 00:37:09.991
이 서술어가 뭐를 요구합니까?

00:37:10.091 --> 00:37:11.813
누가, 누구를 보다.

00:37:11.913 --> 00:37:13.421
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?

00:37:13.521 --> 00:37:20.137
저를의 준말이죠.

00:37:20.237 --> 00:37:22.499
그러면 여기서는 주어로
뭐가 있었겠어요?

00:37:22.599 --> 00:37:25.600
당신께서 저를 보자고 한 말.

00:37:25.700 --> 00:37:30.897
이 문장이 이 안에 안겨 들어가
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

00:37:30.997 --> 00:37:33.680
안은 문장, 이어진 문장은
다음 시간에 설명드려요.

00:37:33.780 --> 00:37:38.052
우선 이 보다, 라는 서술어에서
목적어가 반드시 요구돼야 된다.

00:37:38.152 --> 00:37:40.302
누가 누구를, 반드시 필요하고.

00:37:40.402 --> 00:37:42.138
그 누구를 자리에 뭐가 와 있다?

00:37:42.238 --> 00:37:44.120
저를의 준말인 절이 온 거다.

00:37:44.220 --> 00:37:46.113
그러면 이것도 역시
목적어가 되겠죠.

00:37:46.213 --> 00:37:48.244
다음은요?

00:37:48.344 --> 00:37:50.944
무슨 일인데 나까지 불러냈니?

00:37:51.044 --> 00:37:55.346
목적어 보입니까?

선생님은 보이는데요.

00:37:55.446 --> 00:37:58.709
바로 불러냈니 부분을
생각하면 되죠.

00:37:58.809 --> 00:38:00.162
불러냈니, 불러내다.

00:38:00.262 --> 00:38:02.896
문장 성분 자릿수 뭐가 필요하죠?

00:38:02.996 --> 00:38:05.378
서술어가 누가 불러내다.

00:38:05.478 --> 00:38:07.386
누구를 불러내다, 반드시 필요하죠.

00:38:07.486 --> 00:38:08.726
누가 누구를 불러내다.

00:38:08.826 --> 00:38:11.046
그러면 여기서 누가
불러내는 거예요?

00:38:11.146 --> 00:38:13.406
너는, 이게 주어로 생략돼
있다고 볼 수 있겠죠.

00:38:13.506 --> 00:38:16.834
누구를 불러냈습니까?

00:38:16.934 --> 00:38:19.552
나를 불러낸 거죠.

00:38:19.652 --> 00:38:22.355
여기가 지금 목적어 자리입니다.

00:38:22.455 --> 00:38:26.327
그런데 이 까지는
바로 뭐에 해당한다?

00:38:26.427 --> 00:38:28.043
보조사에 해당하는 거죠.

00:38:28.143 --> 00:38:31.132
그래서 나를 불러내다가
아니라 나까지 불러냈다.

00:38:31.232 --> 00:38:32.852
어감만 바꿔준 거예요.

00:38:32.952 --> 00:38:34.335
그래서 뉘앙스만 더해준 거.

00:38:34.435 --> 00:38:38.029
그러나 이 까지라는 자리는
를의 자리였다는 거를 확인하면

00:38:38.129 --> 00:38:39.998
목적어임이 확실한

거를 알 수 있어요.

00:38:40.098 --> 00:38:42.148
그래서 이거 목적어 찾아냈죠?

00:38:42.248 --> 00:38:45.578
그다음에 밑에 있는 예문은
목적어가 있을까요?

00:38:45.678 --> 00:38:47.683
여기 를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예요.

00:38:47.783 --> 00:38:49.926
이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

00:38:50.026 --> 00:38:53.642
지금 을, 를 같은
경우가 목적격 조사니까

00:38:53.742 --> 00:38:55.891
그거를 통해서 목적어임을
확인할지는 모르지만

00:38:55.991 --> 00:38:58.702
이때 를은 목적격 조사는 아니죠.

00:38:58.802 --> 00:39:02.008
을이나 를이 강조의 기능을
할 때가 있습니다.

00:39:02.108 --> 00:39:06.279
그렇게 강조의 기능을 할 때에는
체언 뒤에 붙는 게 아니라

00:39:06.379 --> 00:39:08.400
보조사로 취급되는 거기 때문에

00:39:08.500 --> 00:39:10.883
이렇게 용언의 연결형
뒤에도 붙는 거죠.

00:39:10.983 --> 00:39:16.167
통 씻지를 못하니, 이때의 를은
없어도 되는 보조사에 해당해요.

00:39:16.267 --> 00:39:19.822
그런데 이 보조사가
강조를 나타내는 거죠.

00:39:19.922 --> 00:39:21.761
통 씻지 못하니 너무 힘들다.

00:39:21.861 --> 00:39:24.210
또 얘가 격조사는
적어도 아닌 것이,

00:39:24.310 --> 00:39:30.029
씻지는 씻다의 활용형.

00:39:31.329 --> 00:39:35.976
용언이 활용되는 어미인

이 지 뒤에 붙는 거를 통해서

00:39:36.076 --> 00:39:38.370
격조사가 될 수는 없다.

00:39:38.470 --> 00:39:40.662
보조사임이 확실하다는
거를 알 수 있죠.

00:39:40.762 --> 00:39:42.339
따라서 얘는 목적어는 아니에요.

00:39:42.439 --> 00:39:44.006
보조사는 왜? 격이 없죠.

00:39:44.106 --> 00:39:46.685
보조사는 문장 성분을
결정짓는 힘이 없습니다.

00:39:46.785 --> 00:39:47.981
다음 문장이에요.

00:39:48.081 --> 00:39:49.859
나는 단역 배우라도 되고 싶다.

00:39:49.959 --> 00:39:56.997
여기서 지금 되고 싶다가 서술어죠?

00:39:57.097 --> 00:39:59.286
되다예요.

00:39:59.386 --> 00:40:01.272
그러면 누가 주어입니까?

00:40:01.372 --> 00:40:04.067
나는 되고 싶다, 내가
되고 싶은 거예요.

00:40:04.167 --> 00:40:05.423
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?

00:40:05.523 --> 00:40:09.088
단역 배우가 되고 싶은 거죠.
이해 되십니까?

00:40:09.188 --> 00:40:14.004
가가 와야 될 자리에 라도라는
보조사가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

00:40:14.104 --> 00:40:17.451
가가 원래 왔어야 될 자리라면
보어로 취급받는 겁니다.

00:40:17.551 --> 00:40:22.689
그래서 이게 보어죠.

00:40:22.789 --> 00:40:24.449
이번에 보어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.

00:40:24.549 --> 00:40:25.776
그다음에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.

00:40:25.876 --> 00:40:27.590
정회원이 아니어도
응모할 수 있어요.

00:40:27.690 --> 00:40:32.144
아니다, 라는 서술어가 보여요.

00:40:32.244 --> 00:40:37.241
그러면 이 아니다, 라는 서술어도
주어, 보어가 요구될 거 아닙니까?

00:40:37.341 --> 00:40:40.397
그러면 여기서 앞에 거
정회원이 주어냐?

00:40:40.497 --> 00:40:45.527
아니요, 당신이라는 게
생략돼 있을 거를 생각하면

00:40:45.627 --> 00:40:51.070
얘는 뭐가 되는 거죠? 보어죠.

00:40:51.170 --> 00:40:53.381
얘가 보어죠.

00:40:53.481 --> 00:40:54.880
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.

00:40:54.980 --> 00:40:58.167
그냥 무작정 아니다 앞에 있으니까
주어야,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.

00:40:58.267 --> 00:41:00.650
아닌 주체가 누구지?

00:41:00.750 --> 00:41:03.025
아, 지금 너희들.

00:41:03.125 --> 00:41:05.399
누가 정회원이 아니다.

00:41:05.499 --> 00:41:07.741
그러면 정희원이 아니다에
앞에 오는 거.

00:41:07.841 --> 00:41:09.097
보충해주는 말이겠구나.

00:41:09.197 --> 00:41:12.063
얘는 주어가 아닌 보어야,
라는 거를 챙겨주면 됩니다.

00:41:12.163 --> 00:41:16.023
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
목적어나 보어를 찾아봤고요.

00:41:16.123 --> 00:41:21.779
이번에는 부속 성분으로
볼 수 있었던 꾸미는 성질.

00:41:21.879 --> 00:41:24.584
바로 관형어랑 부사어를
보도록 할 텐데.

00:41:24.684 --> 00:41:30.916
관형어는 기능이 체언을
수식하는 거죠?

00:41:31.016 --> 00:41:33.987
그래서 종류를 우리
나눠본 적이 있습니다.

00:41:34.087 --> 00:41:35.834
첫 번째 보죠.

00:41:35.934 --> 00:41:38.228
여기서 관형어 찾아봅시다.

00:41:38.328 --> 00:41:41.092
첫 번째 문장 관형어
어디 있습니까?

00:41:41.192 --> 00:41:48.510
옷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게끔 새
옷을 두고 헌 옷을 입느냐?

00:41:48.610 --> 00:41:53.294
또 그 다음 문장에는요?

00:41:53.394 --> 00:41:58.419
어느 날 소년은 웬 아이를 만났다.

00:41:58.519 --> 00:42:07.748
지금 이런 놈들은 관형어가 될 수
있는 첫 번째 조건, 관형사인 거죠.

00:42:07.848 --> 00:42:11.382
품사로 관형사라면 그놈은
관형어가 된다.

00:42:11.482 --> 00:42:15.515
그래서 새, 헌, 어느, 웬은
사전에 그대로 형태가 고정되어

00:42:15.615 --> 00:42:18.360
등재되어있는 단어들 관형사입니다.

00:42:18.460 --> 00:42:21.195
다음 두 번째, 관형어
어디 있나요?

00:42:21.295 --> 00:42:25.285
하늘을 꾸며주고 있죠, 높은 하늘.

00:42:25.385 --> 00:42:30.945
다음 점을 꾸며주는 한 점,
이렇게 떠 있는 거죠.

00:42:31.045 --> 00:42:32.284
이거는 수관형사고.

00:42:32.384 --> 00:42:35.321
그런데 수관형사도 어쨌든
1번에 속하는 겁니다.

00:42:35.421 --> 00:42:39.142
그래서 지금 이것도 맞지만 이거
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

00:42:39.242 --> 00:42:42.176
그다음, 이게 그 선수가
사용했던 글러브죠?

00:42:42.276 --> 00:42:44.615
여기 사용했던.

00:42:44.715 --> 00:42:50.042
물론 여기도 그 선수, 그가
지시 관형사로 쓰이는 거죠.

00:42:50.142 --> 00:42:51.763
여기에는 한, 수관형사.

00:42:51.863 --> 00:42:52.981
그, 지시 관형사.

00:42:53.081 --> 00:42:54.689
이게 1번에 속하는 놈들인데,

00:42:54.789 --> 00:42:59.102
지금 높인이나 사용했던을
한번 연결해볼게요.

00:42:59.202 --> 00:43:02.551
이놈들은 문장 성분으로는
관형어가 됩니다.

00:43:02.651 --> 00:43:04.635
품사는 관형사가 아니죠.

00:43:04.735 --> 00:43:06.814
높은, 이거는 품사 뭐다?

00:43:06.914 --> 00:43:10.940
품사는 형용사.

00:43:11.040 --> 00:43:14.472
사용했다, 사용하다를
찾아야 되는 거고.

00:43:14.572 --> 00:43:16.556
그다음에 얘는 동사가 되는 거죠.

00:43:16.656 --> 00:43:20.289
그런데 이런 놈들이
뭐를 가지고 왔다?

00:43:20.389 --> 00:43:25.042
은이라는 또는 던이라는 관형사형
전성 어미를 취했던 겁니다.

00:43:25.142 --> 00:43:38.840

그래서 두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
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붙여주는 경우죠.

00:43:38.940 --> 00:43:45.969
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은, 을,
는, 던과 같은 것이 있었죠.

00:43:46.069 --> 00:43:49.051
그리고 으의 경우에는
매개 모음이기 때문에

00:43:49.151 --> 00:43:52.679
앞에 선행 환경을 보셔야 돼요,
받침이 있는지 없는지.

00:43:52.779 --> 00:43:54.371
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고.

00:43:54.471 --> 00:43:56.723
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.

00:43:56.823 --> 00:43:58.565
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다.

00:43:58.665 --> 00:44:01.294
나라의가 보배를 꾸며주네요.

00:44:01.394 --> 00:44:04.101
또 이 책의 저자가 제 여식입니다.

00:44:04.201 --> 00:44:08.961
여기 이 책의 저자, 이렇게
해서 꾸며준 거예요.

00:44:09.061 --> 00:44:10.722
이 제도 마찬가지예요.

00:44:10.822 --> 00:44:12.766
제도 뭐의 준말입니까?

00:44:12.866 --> 00:44:15.513
저의, 이거의 준말이죠.

00:44:15.613 --> 00:44:17.809
저의 딸, 여식입니다.

00:44:17.909 --> 00:44:19.740
그래서 지금 명사를
꾸며주게 되는데,

00:44:19.840 --> 00:44:23.758
세 번째의 경우는 뭐다?

00:44:23.858 --> 00:44:26.393
체언, 각각 나라, 책, 저.

00:44:26.493 --> 00:44:28.165
이런 명사나 대명사.

00:44:28.265 --> 00:44:34.225
체언에 뭐를 붙였다?

관형격 조사인 의를 붙인 거죠.

00:44:36.696 --> 00:44:39.654
그랬을 때 우리는 관형어라고
취급하는 거고요.

00:44:39.754 --> 00:44:43.426
마지막은 이번 주말에는
이모집에 가서 놀자고 했을 때

00:44:43.526 --> 00:44:46.039
이번의 경우에는 관형사이고

00:44:46.139 --> 00:44:48.753
이모의 경우에는
관형사는 아니거든요.

00:44:48.853 --> 00:44:51.407
그러니까 이번은 주말을
꾸며주고 있는 게 맞고.

00:44:51.507 --> 00:44:56.101
이모는 관형사는 아니지만
왠지 느낌이 이모의 집에,

00:44:56.201 --> 00:44:57.856
이런 느낌인 거죠.

00:44:57.956 --> 00:45:01.607
즉 관형격 조사를 넣지 않는 것이
자연스러운 구성이 있을 거예요.

00:45:01.707 --> 00:45:06.738
그래서 네 번째에는 이 부분.

00:45:06.838 --> 00:45:14.182
체언 단독으로 관형어
역할을 할 수도 있다.

00:45:14.282 --> 00:45:17.050
요즘에 참외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

00:45:17.150 --> 00:45:19.651
아주 제철이어서 맛이 들었던데,

00:45:19.751 --> 00:45:22.543
참외 하면 성주 지역이
좀 유명하다고 합니다.

00:45:22.643 --> 00:45:26.006
그래서 성주 참외.

00:45:26.106 --> 00:45:28.493
이런 식으로 써도
마찬가지로 성주의,

00:45:28.593 --> 00:45:30.432
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

00:45:30.532 --> 00:45:32.655
그런데 이 성주의 참외

하면 오히려 어색하니까

00:45:32.755 --> 00:45:34.549
성주 참외,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

00:45:34.649 --> 00:45:36.776
성주의 문장 성분이 뭐냐고 한다면

00:45:36.876 --> 00:45:39.942
참외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로
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45:40.042 --> 00:45:43.661
또 고향 친구를
만났어, 라고 할 때

00:45:43.761 --> 00:45:46.650
고향 친구도 마찬가지로 의를
넣어주는 게 오히려 어색해요.

00:45:46.750 --> 00:45:49.109
그러나 고향의 친구의
개념은 맞잖아요.

00:45:49.209 --> 00:45:52.483
그래서 이거를 어절 단위로
문장 성분을 따져보면

00:45:52.583 --> 00:45:56.637
관형어, 관형어 이렇게
잡을 수가 있는 거죠.

00:45:56.737 --> 00:45:58.265
품사 자체는 명사들이지만.

00:45:58.365 --> 00:46:00.541
다음.

00:46:00.641 --> 00:46:03.616
이번에는 부사어를 보도록 하죠.

00:46:03.716 --> 00:46:12.645
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해주는
기능을 가진 거죠.

00:46:12.745 --> 00:46:17.888
얘네들은 용언 수식.

00:46:17.988 --> 00:46:22.224
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용언을 수식하고
있는 거를 빨리 찾아봅시다.

00:46:22.324 --> 00:46:25.676
첫 번째는 떠나다가 동사인데,

00:46:25.776 --> 00:46:28.329
이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
어서가 달려들었죠.

00:46:28.429 --> 00:46:29.862
어서 떠나자.

00:46:29.962 --> 00:46:31.721
다음, 치우다 동사죠.

00:46:31.821 --> 00:46:33.544
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?

00:46:33.644 --> 00:46:36.331
깨끗이 치워라, 이런 거 나왔네요.

00:46:36.431 --> 00:46:38.586
이 둘은 어떤 기능이라고
봐야 됩니까?

00:46:38.686 --> 00:46:44.173
어서나 깨끗이는 사전에 등재가
되어 있는 부사들이죠.

00:46:44.273 --> 00:46:47.173
즉 부사어가 될 수
있는 첫 번째 조건은

00:46:47.273 --> 00:46:50.658
바로 부사가 되면 부사어가 된다.

00:46:50.758 --> 00:46:52.583
얘는 형태가 고정되는 있는 것,

00:46:52.683 --> 00:46:54.965
어서를 형태소를 끊을
수 없는 것이라면

00:46:55.065 --> 00:46:58.546
밑에 있는 이 깨끗이 같은
경우에는 깨끗이라는 어근 부분에

00:46:58.646 --> 00:47:01.916
이라는 부사와 접미사.

00:47:02.016 --> 00:47:03.716
우리 접미사 개념 공부했죠?

00:47:03.816 --> 00:47:06.385
접미사가 더해져 만들어진
부사가 되는 거죠.

00:47:06.485 --> 00:47:10.664
그래서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
역할을 하고 있으면 품사 뭐다?

00:47:10.764 --> 00:47:12.677
그냥 부사다, 이렇게
외우면 됩니다.

00:47:12.777 --> 00:47:14.437
다음 거 보도록 하죠.

00:47:14.537 --> 00:47:15.973
여기 보고 밝게 웃어봅시다.

00:47:16.073 --> 00:47:19.505

서술어인 이 웃어봅시다를
꾸며주는 게 뭐예요?

00:47:19.605 --> 00:47:22.450
밝게 웃어봅시다.

00:47:22.550 --> 00:47:25.787
다음 토론을 했는데
하다가 서술어잖아요.

00:47:25.887 --> 00:47:29.797
어떻게 했다?
밤이 새도록 했다는 거죠.

00:47:29.897 --> 00:47:33.159
이 새도록이 지금 뭐를 꾸며준다?

00:47:33.259 --> 00:47:35.003
했다를 꾸며준다는 거예요.

00:47:35.103 --> 00:47:37.001
역시나 부사어들이 될 텐데.

00:47:37.101 --> 00:47:41.477
밝게나 새도록이랑, 이 어서나
깨끗이의 차이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.

00:47:41.577 --> 00:47:44.330
어서나 깨끗이는 이
자체로 고정되어있어서

00:47:44.430 --> 00:47:46.134
사전에 등재가 되어있다고 하지만

00:47:46.234 --> 00:47:50.434
이 밝게나 새도록은 사전을 찾아봐도
나올 수가 없습니다, 이 자체로는.

00:47:50.534 --> 00:47:51.927
각각 뭐를 찾아봐야 된다?

00:47:52.027 --> 00:47:56.722
밝다, 새다를 찾아봐야
된다는 이야기죠.

00:48:00.059 --> 00:48:02.794
그러면 밝다나 새다를 찾았는데

00:48:02.894 --> 00:48:06.119
여기서의 어간은 바로
밝이나 새잖아요.

00:48:06.219 --> 00:48:08.037
뭐가 더해진 겁니까?

00:48:08.137 --> 00:48:11.372
게, 도록이 더해졌어요.

00:48:11.472 --> 00:48:13.609
이런 구성.

00:48:13.709 --> 00:48:15.151
두 번째 구성입니다.

00:48:15.251 --> 00:48:17.753
우리 관형어가 될 수
있는 두 번째 조건이

00:48:17.853 --> 00:48:22.071
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
전성 어미 은, 를, 던

00:48:22.171 --> 00:48:24.594
이런 거를 붙여줬다면
똑같은 구조예요.

00:48:24.694 --> 00:48:34.513
용언의 어간에 이번에는 부사형
전성 어미를 붙이겠다는 거죠.

00:48:34.613 --> 00:48:38.786
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
붙이면 관형어가 되는 것이고.

00:48:38.886 --> 00:48:42.347
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전성 어미
붙이면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.

00:48:42.447 --> 00:48:44.459
품사는 안 바뀌고. 그렇죠?

00:48:44.559 --> 00:48:49.022
따라서 밖게나, 새도록은
품사 자체는 다 용언으로

00:48:49.122 --> 00:48:50.737
동사, 형용사를 잡아놔야 돼요.

00:48:50.837 --> 00:48:53.717
그러나 여기에 게나
도록 같은 게 왔을 때

00:48:53.817 --> 00:48:55.755
뒤에 이렇게 꾸며줄
수 있게 됐으니까

00:48:55.855 --> 00:48:57.480
이놈들을 뭐라고 부를
수 있는 거죠?

00:48:57.580 --> 00:49:00.857
이 문장에서는 부사형 전성
어미라고 불러줄 수 있고.

00:49:00.957 --> 00:49:06.320
이때 밝게나 또는 새도록은 문장
성분, 부사어로 처리하면 되겠고요.

00:49:06.420 --> 00:49:08.002
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.

00:49:08.102 --> 00:49:10.516

나는 그녀를 뉴욕에서 처음 만났다.

00:49:10.616 --> 00:49:12.091
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어요?

00:49:12.191 --> 00:49:13.462
뉴욕에서 만났어요.

00:49:13.562 --> 00:49:15.530
또 무서워요, 뭐처럼 무서워요?

00:49:15.630 --> 00:49:17.925
호랑이처럼 무서워요.

00:49:18.025 --> 00:49:22.731
애네들은 어떠한 관계성을 맺습니까?

00:49:22.831 --> 00:49:31.576
체언에 관형격 조사인 의를 붙이면
관형어가 된다고 했잖아요.

00:49:31.676 --> 00:49:34.735
뉴욕의 날씨, 이러면 뉴욕의는
관형어 되지 않습니까?

00:49:34.835 --> 00:49:36.484
그런데 여기서 뉴욕에서 만나다.

00:49:36.584 --> 00:49:39.702
또는 호랑이처럼 무섭다와 같이 용언을
꾸미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.

00:49:39.802 --> 00:49:41.521
각각 뭐가 붙었기 때문이다?

00:49:41.621 --> 00:49:48.811
에서나 처럼과 같은
부사격 조사가 붙었죠.

00:49:48.911 --> 00:49:52.338
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이
내가 부사격 조사를

00:49:52.438 --> 00:49:54.272
얼마나 알고 있는가를
떠올려야 됩니다.

00:49:54.372 --> 00:49:57.560
선생님이 부사격 조사 반드시 외워줘야
된다고 강조를 했을 거예요.

00:49:57.660 --> 00:50:02.329
일단 장소, 방향, 처소의
개념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

00:50:02.429 --> 00:50:06.391
어디에서, 어디로, 어디에
이런 거 있었죠.

00:50:06.491 --> 00:50:09.243
그다음에 대상 관계로 누구누구에게,

00:50:09.343 --> 00:50:12.117
구어체 누구누구한테,
누구누구더러, 누구누구보고

00:50:12.217 --> 00:50:13.741
이런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.

00:50:13.841 --> 00:50:17.527
그다음에 우리 비교
부사격 조사 했잖아요.

00:50:17.627 --> 00:50:21.715
그러니까 A는 B보다,
A는 B만큼, A는 B처럼,

00:50:21.815 --> 00:50:26.130
A는 B같이 할 때 그 네 가지
비교해줄 수 있는 거였고요.

00:50:26.230 --> 00:50:28.764
그다음에 자격이나 수단을
나타내줄 수 있었던

00:50:28.864 --> 00:50:30.972
로서라든지 로써라든지.

00:50:31.072 --> 00:50:35.040
또 그다음에 직접 인용,
간접 인용이 있었죠.

00:50:35.140 --> 00:50:36.568
~라고, 고.

00:50:36.668 --> 00:50:40.160
그다음에 동반 개념으로 와, 과,
랑, 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.

00:50:40.260 --> 00:50:43.644
지금을 이야기했던 처럼은 비교
부사격 조사로 외워줬으면

00:50:43.744 --> 00:50:45.681
무조건 부사어되는 거예요.

00:50:45.781 --> 00:50:47.749
호랑이처럼, 이게 부사어.

00:50:47.849 --> 00:50:49.598
뒤에 나와 있는 무섭다를
꾸며준다는 겁니다.

00:50:49.698 --> 00:50:52.393
그래서 체언에 부사격
조사가 더해지는 구조도

00:50:52.493 --> 00:50:55.552
역시 부사어를 만든
방법 중에 하죠.

00:50:55.652 --> 00:50:58.539

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?

00:50:58.639 --> 00:51:03.662
여러분 이거 만큼의 품사가 뭐죠?

00:51:03.762 --> 00:51:08.759
의존 명사죠.

00:51:08.859 --> 00:51:13.108
그런데 일부 의존 명사 중에서는

00:51:13.208 --> 00:51:15.729
조사들이랑 결합하는
게 약간 애매하면서

00:51:15.829 --> 00:51:20.041
봤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용언을 꾸미는
그런 기능을 가질 때가 있어요.

00:51:20.141 --> 00:51:21.496
이 문장도 보면,

00:51:21.596 --> 00:51:23.666
곧 개학이니 오늘은
놀 만큼 놀아라.

00:51:23.766 --> 00:51:27.474
여기에 관형어와 그다음에
의존 명사의 이 세트가,

00:51:27.574 --> 00:51:30.793
놀 만큼 놀다,
할 만큼 했다 하는 식으로

00:51:30.893 --> 00:51:33.402
뒤에 있는 서술어를
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.

00:51:33.502 --> 00:51:36.742
그래서 일명 이런 의존
명사를 부사성 의존 명사.

00:51:36.842 --> 00:51:43.654
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의존
명사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.

00:51:43.754 --> 00:51:47.326
그리고 이 부사성 의존
명사를 가지고 있는 놈이

00:51:47.426 --> 00:51:49.197
바로 부사어로 취급을 받습니다.

00:51:49.297 --> 00:51:51.582
그래서 네 번째는 좀
특이한 케이스가 되는데,

00:51:51.682 --> 00:51:53.611
이렇게 해서 부사어의
종류를 따져봤어요.

00:51:53.711 --> 00:51:56.461
다음.

00:51:56.561 --> 00:51:59.316
마지막으로 문장 성분
뭐가 남았습니까?

00:51:59.416 --> 00:52:02.656
독립어가 남았죠.

00:52:05.338 --> 00:52:10.454
그런데 이 부사어의 경우에는
필수적 부사어가 있고

00:52:10.554 --> 00:52:13.022
그다음에 필수적이지 않은
부사어가 있을 텐데.

00:52:13.122 --> 00:52:15.393
가령 예를 들어 어서 같은
거는 필수적이지 않죠.

00:52:15.493 --> 00:52:18.128
그냥 시간이 늦었으니 떠납시다,
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.

00:52:18.228 --> 00:52:19.818
어서가 반드시 요구되는
거는 아니에요.

00:52:19.918 --> 00:52:22.351
그러니까 얘는 필수적인
부사어는 아니다.

00:52:22.451 --> 00:52:26.175
손님 오기 전에, 이게 부사어인데
손님이 오기 전에 치워라.

00:52:26.275 --> 00:52:28.570
괜찮죠? 깨끗이가
필수적이지는 않아요.

00:52:28.670 --> 00:52:30.526
그다음, 여기 보고 웃어봅시다.

00:52:30.626 --> 00:52:34.579
역시나 밝게가 반드시
필요한 거는 아니었어요.

00:52:34.679 --> 00:52:36.034
그러면 필수적 부사어가 아닙니다.

00:52:36.134 --> 00:52:38.094
다음, 우리는 밤이
새도록 토론을 했다.

00:52:38.194 --> 00:52:40.289
이거 새도록 없이 그냥
우리는 토론을 했다.

00:52:40.389 --> 00:52:41.544

이렇게 해도 충분하잖아요.

00:52:41.644 --> 00:52:43.197
이거 굳이 안 들어가도
되는 거거든요.

00:52:43.297 --> 00:52:44.913
이것도 필요한 거는 아니었어요.

00:52:45.013 --> 00:52:47.101
그다음에 나는 그녀를 만났다.

00:52:47.201 --> 00:52:51.393
이러면 이제 궁금해져, 어디서요?

00:52:51.493 --> 00:52:55.717
이게 필수적인 부사어가 되죠.
이해 되십니까?

00:52:55.817 --> 00:52:59.137
다음, 수학 선생님은
호랑이처럼 무섭다.

00:52:59.237 --> 00:53:00.985
이거는 필수적이지 않죠.

00:53:01.085 --> 00:53:03.177
수학 선생님은 무섭다,
이래도 되는 거거든요.

00:53:03.277 --> 00:53:05.241
이거는 반드시 필요한
거는 아니에요.

00:53:05.341 --> 00:53:07.052
오늘은 놀아라, 괜찮죠.

00:53:07.152 --> 00:53:08.593
이것도 반드시 필요한
거는 아니에요.

00:53:08.693 --> 00:53:11.037
여기서는 이놈만 필수적
부사어라고 보면 돼요.

00:53:11.137 --> 00:53:13.366
나는 그녀를 만났다.

00:53:13.466 --> 00:53:15.218
어디에서 만났는데?

00:53:15.318 --> 00:53:17.106
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.

00:53:17.206 --> 00:53:24.345
그래서 이게 필수적
부사어고 나머지는 아니다.

00:53:24.445 --> 00:53:26.036
그다음 보겠습니다.

00:53:26.136 --> 00:53:27.901
여기는 독립어인데

00:53:28.001 --> 00:53:31.319
독립어는 사실 가장 가볍게 넘어갈
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.

00:53:31.419 --> 00:53:34.580
그래서 이 독립어는 종류들만
따져보도록 할게요.

00:53:34.680 --> 00:53:36.736
그래서 일단 대답하는
말들 있잖아요.

00:53:36.836 --> 00:53:41.256
네, 아니오와 같은 그런 표현들은
분명 독립어로 쓰입니다.

00:53:41.356 --> 00:53:42.682
마침표까지 찍어놨죠.

00:53:42.782 --> 00:53:46.084
뒤에 있는 문장과는 상관없이
독립적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.

00:53:46.184 --> 00:53:49.008
그다음 우리 빨리
놀이동산 가요, 네?

00:53:49.108 --> 00:53:52.298
이렇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다든지.

00:53:52.398 --> 00:53:55.902
확인을 하고자 하는
그러한 감탄사 계열도

00:53:56.002 --> 00:53:58.771
우리는 독립어라고
취급을 하게 되죠.

00:53:58.871 --> 00:54:02.483
다음,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
표현 넣을 때가 있습니다.

00:54:02.583 --> 00:54:03.819
아! 이런 감탄.

00:54:03.919 --> 00:54:07.919
음, 이런 것들 전부 다
독립어로 처리될 수 있어요.

00:54:08.019 --> 00:54:12.190
그러니까 네, 네?,
이런 같은 경우에는

00:54:12.290 --> 00:54:16.484
우리가 알고 있는
감탄사의 영역이에요.

00:54:16.584 --> 00:54:19.851

그러니까 품사로 따졌을
때는 감탄사들인데

00:54:19.951 --> 00:54:23.589
감탄사들이 문장 성분으로 넘어갈
때 독립어로 취급받는구나.

00:54:23.689 --> 00:54:25.399
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.

00:54:25.499 --> 00:54:28.482
그런데 반드시 감탄사만 독립어가
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

00:54:28.582 --> 00:54:30.066
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.

00:54:30.166 --> 00:54:32.963
먼저 시월아, 사료 다
먹으면 산책 가자.

00:54:33.063 --> 00:54:34.553
개 이름인가봐요.

00:54:34.653 --> 00:54:36.488
사료 먹었냐, 이렇게
이야기하는 거 보니까.

00:54:36.588 --> 00:54:38.994
그래서 시월아, 사료 다
먹으면 산책 가자.

00:54:39.094 --> 00:54:47.115
이 시월아 부분을 따져보면
개의 이름이 시월이고

00:54:47.215 --> 00:54:50.348
더하기 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.

00:54:50.448 --> 00:54:52.755
이 아가 뭡니까?

00:54:52.855 --> 00:54:59.019
호격 조사, 기억하시나요?

00:54:59.119 --> 00:55:01.630
대상을 부르는 말 호격 조사.

00:55:01.730 --> 00:55:03.864
~아, ~야, ~이여
이런 것들이죠.

00:55:03.964 --> 00:55:06.462
그래서 이렇게 체언에 호격 조사,

00:55:06.562 --> 00:55:11.778
부르는 말을 더해줬을 때에도 독립어가
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0:55:11.878 --> 00:55:17.125
그리고 명사 단독으로 희망,

그것은 내일의 동의어이다.

00:55:17.225 --> 00:55:20.602
여기서 희망을 끊고
그다음에 쉼표 끊고

00:55:20.702 --> 00:55:22.313
그다음에 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.

00:55:22.413 --> 00:55:26.777
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독립적으로
쓰였을 때 강조하는 기능,

00:55:26.877 --> 00:55:28.000
이럴 때 있잖아요.

00:55:28.100 --> 00:55:30.186
그때하고 쉼표 찍어주거나,
마침표 찍어주거나

00:55:30.286 --> 00:55:32.242
명사 단독으로도 뭐가 될 수 있다?

00:55:32.342 --> 00:55:34.422
독립어가 될 수 있음을
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0:55:34.522 --> 00:55:36.035
그다음요.

00:55:36.135 --> 00:55:38.702
사고가 났다, 그러나
부상자가 많지는 않았다.

00:55:38.802 --> 00:55:43.386
뭐가 독립어일까요?

00:55:43.486 --> 00:55:46.405
이겁니다.

00:55:46.505 --> 00:55:49.977
그래서 얘는 품사로
따지게 되면 뭐였어요?

00:55:50.077 --> 00:55:54.120
접속 부사죠.

00:55:54.220 --> 00:55:57.807
접속 부사가 문장 성분으로 따지게
되면 독립어로 취급받게 됩니다.

00:55:57.907 --> 00:56:01.683
그래서 실질적인 문장은 사고가
났다, 부상자가 많지 않았다.

00:56:01.783 --> 00:56:04.204
이런 것만 핵심 정보로
주고 있을 뿐이고.

00:56:04.304 --> 00:56:06.226
이를 그러나는 관계만 만들어주는데

00:56:06.326 --> 00:56:08.974
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
판단이 된다는 겁니다.

00:56:09.074 --> 00:56:13.470
또 그러나 같은 거 뒤에 쉼표를
찍고 이럴 수 있거든요.

00:56:13.570 --> 00:56:16.231
그래서 이런 부분을
독립어로 판단하는 거,

00:56:16.331 --> 00:56:18.397
추가적으로 기억을
해주시기 바랍니다.

00:56:18.497 --> 00:56:22.184
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 일곱
가지에 대해서 쓰임 확인해봤고요.

00:56:22.284 --> 00:56:24.145
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

00:56:24.245 --> 00:56:26.421
문장의 짜임 구조를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56:26.521 --> 00:56:27.384
수고하셨습니다.